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10

통권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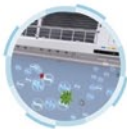
10월
한국문화주간
10.9~18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uto Clean
에어컨
자동세척



Ionizer
먼지 및
공해 제거



Plasma Filter
박테리아&바이러스
제거(조류독감바이러스 포함)



Energy Saver
최소 전기 사용



에어컨 성능과 공간면적 비율	
670W (1pk)	18m ² 공간면적
320W (1/2pk)	10m ² 공간면적



인도네시아 기후환경 하
조류독감바이러스 파괴 증명
보고농과대학 실험결과,
98초 만에 61,000 조류독감균 파괴 증명됨

LG 고객정보센터, 365일 서비스		
CIC 365일	자카르타 (021) 727-99777	0-800-123-7777 (무료전화)
	수라바야 (031) 549-0777	

LG HERCULES Plasma

670W 320W

Super dingin, super irit

이제 10월부터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가는 여행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최신 좌석에서 즐기는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넓은 평면 좌석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는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여행을 약속 드립니다.
여행 그 이상의 특별함, 대한항공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완벽한 휴식

대한항공 Prestige Sleeper Seat가 드리는 휴식과 여유.
버튼 하나로 연출되는 완전평면 침대형 좌석, 와이드 LCD 모니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세상으로 초대하는 AVOD 시스템까지,
내리고 싶지 않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 Prestige Sleeper Seat 공식 홈페이지 <http://newseat.koreanair.com>

* Prestige Sleeper Seat는 현재 한정된 노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PT. DONG JUNG INDONESIA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0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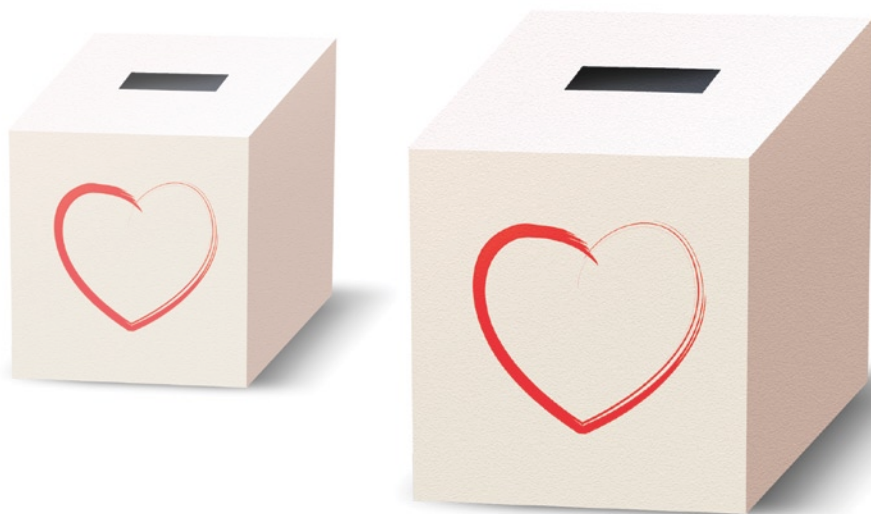
kendj@cbn.net.id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정통 독일형 삼익피아노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



서부 수마트라 빠당지역의 강진 여러분의 온정을 기다립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16분 서부 수마트라 빠당 (부근 해역 57Km 지점) 지역을 강타한 강진 (리히터 7.6규모)으로 공식 사망자가 618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행방불명 및 매몰자를 포함하면 1100~5000명선을 사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 2508여명, 가옥파괴 178,629채 이상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이번 참사는 2006년 족자 강진 이후 최대의 재난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재인도네시아 한국 동포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참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복구에 도움을 주는 뜻에서 재해의연금을 다음과 같이 모금하고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성금 모금함 ◆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은행주소	GKBI Lt.20 Jl. Sudirman Kav.28 Jakarta	Jakarta Stock Exchange Bldg Lt.16 Jl. Jend. Sudirman Kav. 52- 53
계좌번호	USD A/C No. : 220 500 7893 RP A/C No. : 220 200 5949	USD A/C No. : DDA 913-000537 RP A/C No. : DDA 913-000538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모금기간	2009년 10월 7일 ~ 2009년 10월 22일 까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원고 모집 기한 : 12월 15일 까지

인니 교민사회는 어느덧 4만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니사회에 한국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인니 당국에 적발되어 유수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는 등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글리코리안의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든 존재합니다. 어글리코리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심성이 어글리 해서는 아닌 듯 합니다. 자국문화 우월의식, 타문화 이해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해외 동포사회와 현지국과의 불협화음이 곧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교민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짝더라도 꼭 지나가는 여정이며 그래서 꼭 넘어서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교민들과 함께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라는 주제로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주제 : 어글리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2. 모집기간 :
2009.7.10 ~ 2009.12월 15일까지
3.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4. 원고분량 : A4 용지 4매 내외
5. 형식 : 자유
6. 발표 : 한인뉴스 지면
7. 시상일자 : 2009. 12월 중

8. 시상내역 : 대상 1인, 우수상 3인,佳作 5인, 참가상.
(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으로 드리고 한인뉴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보내실곳 : Haninnews123@gmail.com
10. 문의처 : 한인뉴스(Tel : 521-2515)
11. 담당자 : 김영민 편집위원 (HP :0818-916-566)



10 한국문화주간 안내

12 뼈당지역 강진

14 한인사회 소식

- 인니 국회, 수출품 임가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법 통과
- 09년도 제2차 경제간담회 개최
- 대사관, 타미플루 비치
- 서만수 목사 소천



20 건강칼럼 면역력 키워야 신종플루 이긴다!

22 독자기고 반뜰의 고집불통 한국 농부

24 기업탐방 CJ 인도네시아

30 시사포커스 15 돌아온 광고

34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37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8 공항 입·출국 시 유의사항

41 특별기고 北 임진강 방류사건과 이중전략

42 제8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안내

43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인도네시아 학부모 되고 세 번 놀았다

48 유춘강의 긍정칼럼 산드라박을 아신다구요?

51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추억을 만들어 가는 폭포가 있는 산책로

54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6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4

59 중국·중국인을 본다 - 하

관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키워드

64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65 경제 리포트

68 문화회관 안내

69 MOVIES

70 BOOKS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10월 공지사항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aninnews123@gmail.com

http://www.innekorean.or.id

Journey to Korea through Culture & Flavor (Korean Cultural Week)

결실의 계절 10월,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 곳곳서 열린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월. 자카르타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문화의 결실도 가득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까지 산발적으로 개최되었던 각각의 문화행사들이 대사관 주최의 [한국문화주간]이라는 이름으로 금년 10월 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발라이 까르띠니에서의 한국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자수전시회, 한국영화제, 한국 농식품 전시회, 및 음악회가 줄이어 열리게 된다.

1. 한국문화공연 (10.9 금 17:30~21:00, Balai Kartini)

- 한국전통음악, 무용 및 비보이, 숙명여대 가야금 팀 등/ 인도네시아 음악 및 무용
- 공연(17:30-19:30), 리셉션(19:30-21:00)
- * 공연은 문화주간 개막행사로 개최되며 공연 후 개천절, 국군의날을 겸한 리셉션도 있습니다.
- * 초대장은 대사관 문의

2. 자수 전시회 (10.13-18, 국립박물관)

- 자수장 한상수 전시회, 자수 및 공예품 등 100점
- 리셉션 : 10.13(화) 11:30~
- * 리셉션 시 자수 시연회도 있습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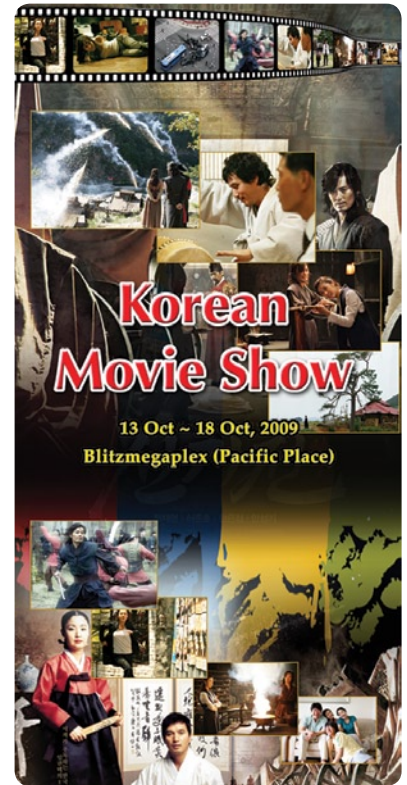


3. 한국 영화제

(10.13-18, 퍼시픽플레이스, 블리즈메가플렉스 극장)

- 리셉션 : 10.14(수) 18:00-19:00, 극장 앞 카페
- 리셉션 후 세븐데이즈 관람(좌석이 한정돼 있어 초청장 필요, 대사관에 문의 요망, 520-1915)
- 영화 : 세븐데이즈, 8월의 크리스마스, 천년학, 신기전, 우아한 세계
- * 동 기간 중 매일 17:00와 19:15분에 다른 영화가 상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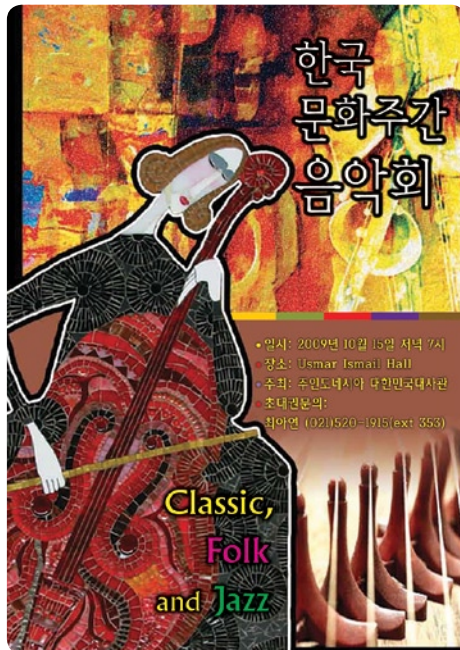
상영일	1회 (상영시간: 17:00)	2회 (상영시간: 19:15)
10.13	우아한 세계	신기전
10.14	천년학	세븐데이즈(초대장에 한함)
10.15	8월의 크리스마스	신기전
10.16	8월의 크리스마스	우아한 세계
10.17	세븐데이즈	천년학
10.18	세븐데이즈	신기전



4. 한국 농식품 전시회

(10.16-18, 그랜드인도네시아 웨스트몰 3A 층)

- 인삼, 홍삼, 배, 사과 등 한국 농식품이 전시됩니다.



5. 음악회 (10.15 19:00-20:20, usma ismail hall)

- 한인 음악인 및 인도네시아 음악인 출연
-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 초대권 문의(최아연 / 021-520-1915 ext. 353)



빠당 인근 7.9 강진 발생, 사망자 1천명 이상 추정... 교민 피해는 없어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에 위치한 빠당시에서 지난달 9월 30일 강진이 발생, 국가재난구조본부에 따르면 10월 4일 현재까지 1천여 명 사망, 수천 여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1천명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가옥 8만3천712채, 공공건물 200여 채, 학교 285곳, 교량 5개가 완파 됐다. 다행히 빠당시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5명을 포함 거주하고 있는 9명의 신변은 안전해 교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 병력을 포함해 구조인력을 계속 급파하고 있으며 빠당시는 야외 병원 등을 설치해 수백 여명의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다 지진 여파로 전력마저 끊긴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적십자 요원들은 구조 작업에 쓸 기자재는 물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3일부터 파당 공항은 전 세계에서 속속 들어오는 구조인력과 물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 구조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데 이어 한국, 일본 정부도 구조

팀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라면 등 긴급식량이 속속 도착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어 제대로 음식을 해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작업이 인구 90만의 대도시 빠당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진으로 인한 대형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빠당 외곽 마을의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도로와 교량이 상당수 파괴되면서 구호요원들이 파당 외곽의 마을들에 접근하기가 아직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조~4조 루피아(미화 3억1천~4억1천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피해 현장을 둘러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구조작업을 위해 1천억 루피아(미화 1천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이날 오전 8시 52분께 빠당시 인근에서 규모 6.8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파당시에서 남동쪽으로 22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인들도 구조활동에 구슬땀

이경수 KOICA 인도적지원팀장을 단장으로한 중앙119구조대원들과 의료봉사단원 및 KOICA 인도적지원팀인 ‘해외 긴급구호팀’원 수십 여명의 한국인들이 지난 2일 자카르타에 도착, 3일부터 강진이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주도 빠당에서 구조작업에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조대는 빠당시를 출발해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 파리아만시 루옥 라웨마를 등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

김석용 구조대 상황팀장은 “파리아만시는 이번 지진으로 도로가 붕괴된 곳이 많아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의료봉사단체 소속 회원 10여명도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파리아만시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해외긴급구호팀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구호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KOICA와 소방방재청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고 중국 쓰촨성 지진 및 미얀마 홍수 등 대형 재난 지역에 파견되어 구호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2004년 아체지역 쓰나미, 2006년 족자카르타 지진에 이어 3번째 파견되는 것으로 인니정부의 부족한 인명구조 기술로 인한 어려움을 도와 신속하게 지진피해지역 인명구조를 돕게 된다.

또한 한국정부는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외에 50만불 상당의 텐트, 담요,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예정이며, 10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금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피해 참사에 대해 한국국민의 애도를 표하고 긴급구호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지진발생 다음날 첫 비행기로 입국했다는 김의동 복음외과의원 원장은 “파리아만시에서는 아직도 구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의료지원 등 구호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교민들의 구조활동 지원도

인니 빈민들을 위한 밥퍼사역중인 최원금 선교사는 지난 4일 빠당의 UN본부에 도착, 해외긴급구호팀의 현장파악을 돕고 있다. 최 선교사는 서부수마트라 주지사와 한국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수술팀의 지원건에 대해 협의와 재난지역 구조활동에도 참가했다. 또한 그는 아직도 여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재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많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통신원인 신성철(스피드뉴스 대표)씨도 지진발생 다음날부터 지체난지역에 도착,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누비며 지진피해상황을 시시각각 구호대와 본국으로 송고해 구조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초기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가족의 애를 태웠던 한국인 유학생 안치우(24.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 통번역학과)씨도 구조대의 통역 역할을 맡아 구조작업을 돕고있다.

한인회 구호성금 모금

재인도네시아한인회도 빠당 지역 강진 발생 이후 대책회의를 가진 후 동포안내문을 게재하고 재난 이재민을 돕기위한 구호성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참조>

인니 국회, 수출품 임가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법 통과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9월 16일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들은 임가공 수출액 총 10억달러(2008년 추산)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게 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배도운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회장은 “대사관과 협의회 등 각계의 협력으로 숙원사업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봉제업체들은 현지 근로자 50만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 임가공에 대

한 과세 여부가 불확실해 현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리 봉제기업과 대사관은 인니 당국에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국제적 관행임을 알리면서 끈질기게 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04년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0%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작년 6월 김호영 대사 부임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서 조세전문가(김동일 국세관)를 파견받아 이 문제를 전달시키고, 인도네시아 의원들에게 수출임가공의 국제적 과세원칙과 영세율 적용 배제시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최된 아시아의원총회(APA)에 참석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한 이강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세법개정 특별위원회’ 멜치아스 마르꾸스 위원장을 예방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 2월 5일 김호영 대사, 김동일 국세관 및 김경곤 前봉제협회장, 배도운 現봉제협회장, 김갑한 봉제협회부회장과 이종훈 PT.EINS 법인장, 노서규 PT. Hansol Indo 이사 등이 인니 국회를 방문, 무르다야 위다워라르따 국회의원과 및 베라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영세율 적용의 당위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평소 임가공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소신이 있었던 두 국회의원들은 영세율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지난 5월 공성진 대통령 특사가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도 국회의장과 면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사관과 봉제협회의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국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재무부 장관, 세법개정위원회 소위원장, 국회의장 등과 수차례 면담하며 협조를 요청해 우리 봉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대사관, 09년도 제2차 경제간담회 개최

대사관 주체의 경제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교민 경제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의 물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김호영 대사 인사말에서 “연초 예상했던 경제 어려움을 기업가 정신으로 극복해낸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올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금용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호전될 거라 본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사는 “유도요노 정권 출범과 각료 임명 전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기업인들과 대사관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음 좋겠다.”며 특히 금일 인니국 회로부터 부가세 영세율법이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봉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대사관 오송 공사는 금년도 한국과 인니, 그리고 세계경제 동향 및 내년 전망의 기초발제가 있었다.

오송 공사는 인도네시아가 금년 SBY의 정치력, 선거 특수 및 내수특성상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SBY 재집권으로 인한 정치안정지속, 경제부양 정책 실시 등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권 코트라 센터장은 한-인니 교역투자 동향 기초발제를 통해 한-인니간 교역이 소수 품목, 특히 원자재 위주로 집중된 경제상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동남아 국 제2위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 임업, 봉제, 건설, 금융, 신발,상공회의소 등 각 협의회로 업종 동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경일 에너지협의회회장(SK 에너지)은 인니는 세계 17위의 원유 생산국이지만 2004년 내수보다 생산력이 적어 원유수입국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현재 국영기업인 Pertamina가 경영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혁중이라고 밝혔다.

석탄부문 에너지협의회회장인 이창훈 키테코 전무는 현재 키테코는 인니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 달하는 연 24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 까지 연 4000만톤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발협의회 홍종서 사무총장은 중국, 베트남의 산업 기지가 인니로 옮겨 올 거라 전망을 했고, 수출임가공 부가세 영세율 세법 통과로 큰 도움을 받게 될 봉제협의회 (회장 배도운)는 환율이 9000루피아 이하로 내려가면 채산성 문제 발생하게 되지만 환율의 문제만 없다면 향후 2,3년 봉제의 호황은 지속될 거라 전망했다.

한편 유전형 건설협회장(한국도로공사 주재원)은 현재 쌍용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10여개 한국기업이 인니에 진출하고 있지만 공공건설부문에서 차관현황 일본이 50%(27억불)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세계은행(12억불), ADB(4억불), 한국 1천~2천만불 수준에 이르러 우리건설기업의 인니 시장 확대를 위해 ODA 확대가 절실하다고 전하고 ODA 확대를 위한 대사관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육찬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차기정부 경제로드맵 작성을 위해 봉제,신발,텍스타일 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고 전하고 정부-인니상공회의소-국제단체와 협력하여 한인사회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타미플루 비치

2009. 9. 3(수) 현재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는 25개주에 걸쳐 1,097명이 발병하여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교민들도 개인 위생에 특히 주의하하고,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호흡곤란 또는 구토·설사 등 인플루엔자 증세가 있을 경우 의사와 즉시 상담하여 조기에 발견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으나 치료제를 구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우선 최소 분량의 타미플루를 각 공관에 지원하였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타미플루 20인분 200정을 비치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 확산동향 및 교민 감염자수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대사관 비치 타미플루는 자의적인 타미플루 복용 시 부작용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우려되므로 본국 지침에 따라 의사 처방전이 있으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투약, 격리치료 가능 병원

병 원	전화번호
RSPI Sulianti Saroso	021) 650-6559, ext.1761
RS Persahabatan	021) 489-1708, ext.644
RSPAD Gatot Subroto	021) 344-1008, ext.5100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 및 처방 가능 병원

병 원	전화번호
RS Pondok Indah	021) 765-7525
RS Medistra	021) 521-0200
RS Pusat Pertamina	021) 721-9777
RS MMC	021) 520-3435

현재 자카르타에는 타미플루 처방·투약, 격리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국가지정병원인 RSPI Sulianti Saroso(650-6559, ext.1761), RS Persahabatan(489-1708, ext.644), RSPAD Gatot Subroto(344-1008, ext.5100)이다.

또한 RS Pondok Indah, RS Medistra, RS Pusat Pertamina, RS MMC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담당: 김용관 임무관 (0811-852-446)

Tel : 520-1915, Fax : 525-4159

Journey to Korea through Culture & Flavor (Korean Cultural Week)

1. Cultural Performances

- Opening for Korean Cultural Week, National Day & Armed Forces Day
- 17:30 9 Oct, 2009/ Balai Kartini (Nusa Indah Theater & Grand Ballroom)
- Traditional Dance and Music, B-boys, Indonesian Music/ Reception
- Invitation (if you want, please call to Korean Embassy.)

2. Korean Movie Show

- 13 Oct ~ 18 Oct, 2009/ Blitzmegaplex (Pacific Place)
- Seven days, Divine Weapon, X-mas in August, Beyond the years, The Show must go on
- 2 times a day, free of charge (except at 18:00 14 Oct)

3. Embroidery Exhibition

- 13 Oct ~ 18 Oct, 2009/ National Museum
- Mrs. Han, sang-soo (Human cultural asset)'s works & demonstration
- Free of charge

4. Korean Agricultural Exhibition

- 16 Oct ~ 18 Oct, 2009/ Grand Indonesia West 3A
- Insam, Hongsam, Pear, Persimmon, Apple, etc
- Free of charge

5. Music Concert

- 19:00~20:20 15 Oct, 2009/ Usmar Ismail Hall
- Korean and Indonesian Local musician's performance
- Free of charge

6. Korean Study Seminar

- 13 Oct, 2009/ University of Indonesia
- Free of charge

7. Korea Alumni - Korean Community Friendship Night

- 18:00 13 Oct, 2009/ Intercontinental Hotel
- Invitation only



Korean Embassy (T. 520-1915)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MPAS

RCTI



인니 첫 선교사, 한인사회 원로 지도자 서만수 목사 소천

점을 만든 원로 지도자이기도 했다.

197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1972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인연합교회를 세웠다. 1974년 개원한 한인유치원과 이듬해 개교한 자카르타 한인학교는 한인교육기관의 효시가 됐다.

평소에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서 목사는 외국인이 직접 선교에 나서기 어려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스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해 파견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충돌을 피하면서 인도네시아 오지에 384개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성과를 이뤘다.

저서로 인도네시아 사역 20년 회고록 <남방에 심는 노래>와 시집 <동개야>, 선교 30년 기념 사례집 <남방에 피는 꽃> 등이 있다.

고 서만수 목사는 자카르타 외곽 까라왕 공원묘지에 잠들었다.

40년을 한결같이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 서만수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6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9월 18일 서만수 목사의 장례예배를 치르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합교회 교인과 교민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과 한국, 인니 각지에서 많은 지인들의 줄이 이어졌다.

1939년 평양에서 출생, 6.25전쟁 중 월남해 서울에 정착하고 목사가 된 서만수 목사는 1971년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첫 선교사의 길을 시작, 인니 최초 한인교회와 한인학교를 세워 종교를 초월한 한인사회의 구심

감사의 말씀

2009년 9월 16일 소천하신 고 서만수 목사님의 장례에 조의를 표해 주신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 여러분과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의 유해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이래 40여년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신 목사님의 뜻을 따라 자카르타 근교 Karawang Barat소재 Taman Kenangan Lestari 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을 찾아뵙고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이렇게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곁에서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22일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당회원 일동



천상행복, 무한으로 누리소서!

- 고 서만수 목사님을 기리며 -

9월 16일 오후에 날아든 한 통의 부음, 서만수 목사님의 소천! 뜻밖에도 존경하던 님의 소천이었습니다. 눈길이 저절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 시각 건기의 광대한 남방 하늘은 이미 폭설 머금은 한국의 동짓달 하늘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971년 인니 선교사로 파송된 후 지금까지 무려 40여 년 님의 사역을 지켜본 남방의 하늘은 무거운 빗방울을 차마 쏟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속 울음만 울고 있었습니다.

서바울 목사님! 언젠가는 왔던 곳으로 홀연히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던가요. 그러나 님의 소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님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향기요 삶의 교훈이셨습니다. 꼭 마주 앉아 함께 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교민행사에서 근엄히 앉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님은 기도였습니다. 하여 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잘난 위자야를 지나는 마음은 늘 든든했었습니다. 비록 인니한인연합교회의 성도가 아니더라도 님의 향훈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한국인들에게 늘 안위였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서 제2장 13절)”를 좌우명처럼 여기시던 님,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반, 동행, 동거, 동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함께 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당당히 앞장서시던 님, 3천 개의 지역교회 설립 목표를 세워 놓고, 이를 이끌어갈 현지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대학교(UKM)를 설립하여 신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님, 더 나아가서 종합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계시던 님,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대 성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오늘을 있게 하시고, 이미 384개의 지역교회를 설립하신 님! 님은 한 사람의 사랑을 향한 노력과 실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님은 한 사람의 태어남이 곧 역사의 시작이고, 한 사람의 삶이 곧 역사를 잇는 것이며, 한 사람의 죽음이 곧 역사로 남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1939년 이북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13년, 20여 년 남한에서의 성장과 준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 40여 년이 곧 역사이며, 결과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발자취임을 생생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종교란 바로 신과의 문제로서 곧 생활”이라고, “우리의 몸과 생활을 운영하는 그 주인인 영혼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던 님, 사경을 해맨 적이 수 차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열어주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다.”시던 님, “십 년 후 그때 또 하루가 열리면 저는 여전히 새롭게 주어진 그날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하시던 님, 이제 님의 내일이 우리들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님은 우리들의 오늘 속에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늘 “선한 고민만을 하고 싶다.”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선한 고민만을 하라고 오늘 속삭이고 계십니다.

손인식(서예가, 시인)

면역력 키워야 신종플루 이긴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최근 빠른 속도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온통 신종 플루에 쏠려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열만 좀 난다고 해도 '신종플루'가 아닌가 해서 슬슬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레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특히 올 가을 대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중 일부의 사인이 폐렴 합병증이었고 신종플루와 증상까지 유사하기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계절성 독감 백신·폐렴구균 백신이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되도록 빨리 바이러스를 분석해 백신을 개발하고, 고위험군부터 신속하게 백신을 투여해 전염병의 창궐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변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조금만 모습을 바꾸어도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을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실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을 자주 씻거나 기침, 재채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점은 이런 신종병에 의한 위기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낯선 질병들의 공격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 봅니다.

■ 한의학으로 본 신종플루

한의학에서는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와 같이 발열을 동반한 외감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온병(溫病)'이라고 합니다. 온병은 병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건조하면서 열을 동반한 온열병(溫熱病)과 축속하면서 열을 동반한 습열병(濕熱病)으로 구분합니다. 신종플루는 더운 기운에 습열(濕熱)이 과해서 발병한 온병(溫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타난 신종플루의 증상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 증상과 유사하여,

발열(37.8℃ 이상), 콧물, 기침, 인후통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에 오심(미식거림),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신종플루는 한의학적으로 습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에서 나타나는 감기 증상에도 습열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식욕부진, 속이 느글거림, 설사, 구토) 신종플루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무력감'도 한의학에서는 탈수기를 안돌린 세탁물처럼 '습(濕)'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져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전염병들이 그렇듯 신종플루 역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더불어 인체의 정기(正氣)를 보존하여 자신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면역력이 약하기 쉬운 5세 이하의 소아나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더욱 감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종플루의 한방치료법, 타미플루, 한약제 '회향'으로 만든다

신종 플루 치료약으로 잘 알려진 타미플루의 핵심 원료는 '팔각회향'이라는 한약재입니다.

신종 플루가 계속 확산되면서 각국이 타미플루 비축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원료 약품의 공급이 달리는 실정이며, 여기에 회향을 달여 먹으면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계 약재 시장에서 회향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 홍삼이나 녹용 한약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많은 논문이 있으며 실제로 감기나 독감의 예방효과도 매우 우수합니다. 만약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수월하게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 '불치이병 치미병(不治已病 治未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병 든 상태를 치료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의 기본치법인 부정거사(扶正祛邪)와 변증론치(辨證論治)에 따라 갈근(葛根), 방풍(防風), 곽향(藿香)과 같은 방향성 해표약(解表藥)과 황금(黃芩), 연교(連翹), 금은화(金銀花)와 같은 청열약, 황기(黃芪)와 같은 보기약(補氣藥) 등을 증상에 맞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精氣)를 보양하여 인체 내의 음양(陰陽)의 평형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사기(邪氣, 나쁜 기운)를 쫓아 미병(未病) 단계에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기병(既病) 단계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자가치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법

전세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전염병 관리방법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인위생을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 정기(正氣)를 보존하여 자기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습열을 조장하는 식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달고 기름진 음식, 과식과 폭식, 야식 습관을 삼가고 속에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썬바귀·치커리·갯잎 등 쓴맛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육류를 섭취할 때도 각종 쌈과 샐러드를 가급적 챙겨먹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있는 식사, 적절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정기를 보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반똥의 고집불똥 한국농부

족자에서 김은숙

형부가 꺼드리에서 족자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아무도 형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형부는 꺼드리 생활을 정리하며 당신이 깊게 뿌리 내릴 농토를 신중이 찾아 다녔던 것 같았다. 남들의 시선쑤이야 아랑곳없이 시내에 오고 가고 하는 불편도 뒤통으로 하고 오직 물 많고 너른 땅이 있으면 형부에게는 대단한 만족이었던지, 형부는 족자에서도 아주 먼 곳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어느 언덕에서서 족자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땅이 푸근한 마음이 들어, 혹은 아직도 10대의 왕인 스리슬탄을 존중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느리고 순해터진 족자인들의 생활에 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반똥에 30년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으로 4헥타의 넓은 농지를 얻어 손수 집을 지었고 그곳에서 언니와 어렵게 얻은 늣둥이 아들을 데리고 입주를 했다.

형부는 도회지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예 무시하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지만 그런 형부를 보는 시각은 형부의 직업이 농부라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던가 보다. 농사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비 수입 업종에 속한 가장 흔하고 힘든 직업이었기에 더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다.

형부가 자리 잡은 곳은 반똥이다. 인니에 거주하는 자국인과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억 할 것이다. 2005년 견갑을 수 없었던 지진과 그 지진으로 인하여 반똥 지역은 평지가 되었을 만큼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형부는 아마도 족자의 역사처럼 천년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어 보이는 농가들이 많아서 반똥을 선택한

것 같다. 형부는 천성적으로 농사일을 사랑하고 천직으로 생각하는 이들과 같이 일하며 하루하루 농장을 키워 나갔다.

반똥의 현지 농가에 한국인이 찾아 들었다고 소문이 퍼졌고 그들은 드세게 텃세를 부리기 시작 했다. 마을 유지들이 찾아 와서 압력을 넣는가 하면 시골 동네 깡패들도 찾아와 겁을 주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들은 외국인 이 그들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신성한 직업인 농사일에까지 찾아 든 형부가 미웠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부는 현지인에게 먼저 성실한 한국인 농부의 모습을 보였고 농사 기술을 고용인들에게 전해주면서 형부의 정책을 따르게 하였다. 어느 정도 말은 되지만 관습과 정서가 사뭇 다른 그들이 형부의 독자적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지만 형부는 그들에게 적당히 돈 주고, 어르고, 달래는 그런 고용주로서가 아닌 일에 있어서 만큼은 철두 철미한 매서운 고용주 이었으니 적잖게 오해의 소지를 살만 했다. 아무리 형부의 독자적인 품종 개량으로 인도네시아 농촌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해도 농촌에 사는 현지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겁 없는 외국인 농부였으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족자의 변두리 농가에서 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 잘하는 이들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 주고 평상 시 농사 짓느라 애쓰는 그들을 세세히 살펴주기도 하며 큰 지진 때에는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누군들 형부네 농장에서 일을 안하고 싶어 하겠는가? 지금은 반똥 농가 근처에 가서 형부네 농장을 물으면 서로 앞장서서 세세히 가르쳐주고 더욱이 주민들은 요즘 같이 일자리 없는 불황에 형부가 혹시 마

반똥의 고집불통 한국 농부 박병협 씨
(오른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한국에서 농장 실습을 나온 교
수님들과 학생들 함께 찍은 사진



을을 떠나지나 앓을까 걱정이 앞서 형부
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형부는 시내에서 만날 때에도 집에서
입는 옷 스타일과 같았다. 와이셔츠에 양
말 속안으로 꼭 바지를 집어넣어 누가 봐도 농부를 연상
하게 했다. 그래서 었을까? 꺼드리에서 족자로 옮긴지 한
참이 지나서도 교민 누구도 형부의 존재를 쉽게 알지 못
했다.

형부는 낮에는 농장일을 돌보고 밤에는 가족들과 시간
을 보내니 시골 한지에서 돈도 벌면서 가족에게 시간 할애
를 전부 하니 언니가 무슨 불만이 있었겠는가? 다만 그 당
시에는 TV도 없었으니 형부의 한적한 시골 생활은 조용
하고 따분했을 것 같다. 그런데도 형부네 가족은 특별한 소
문 없이 매년을 보냈다.

교민들에게 형부가 알려진 것은 최근 5-6년 사이의 일
이다. 유명해진 것은 순전히 형부의 순수한 성격 탓이다. 수
확기에 작물이 조금이라도 버려질 까봐 작물 상태에 따라
당신 저녁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형부는 안면이 조금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수확물을 나눠 드렸다. 물론 제일 혜택을 많
이 받은 것은 우리 가족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엄마가 으
뜸이었지만 형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실 형
부 덕분에 한국종자의 파리 고추와 참외, 미나리며 깻잎 등
을 손쉽게 먹어볼 수 있었고 족자 교민들의 밥상이 야채로
풍성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형부는 농장일을 잘 꾸려 나가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한다는 소식이 언제부터인지 족자
한인 사회에서 인식되어 이제는 족자 교민이라면 형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형부는 성품이 착하고 당신 직업에 자긍심을 갖으며 꾸
준히 노력하는 성격이기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형부를
반겨 한다. 형부는 철저히 땅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의 수고
를 아끼지 않으면 땅은 배반하는 일 없이 열매 맺게 만드는
섭리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친구라고 생각 하고 있기에 어
제도 오늘도 밭에 나가 진실한 구슬땀을 흘린다. 지금 형부
는 10년 전과 같이 족자 시내에서 40여분을 빠랑뜨리떠스
길로 달려야 도착하는 반똥에서 안팎으로 내조 잘하는 언
니와 형부와 언니를 반씩 닮아 똑똑한 아들과 새콤 달콤 살
고 있다. 형부는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형부의 그
런 외골수적인 고지식한 면이 농부이면서도 성공적인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몇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느냐고 더러 사람들이 묻는다.
형부는 중소기업의 사장들보다도 직원들을 더 많이 둔 대
기업의 사장 못지 않지만 직원과의 마찰 소식을 접한 바가
없으니 형부는 아마도 경영에 있어서도 삶 못지 않게 진실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노력과 성실을 아끼지 않고 사
랑과 덕을 갖추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땅을 사
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형부, 그래서 교민 중에 어려운 사
람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는 형부, 나는 그런 형부를 진정
으로 존경한다. 형부 잘 해내셨어요!



CJ 인도네시아는 1988년 인도네시아 진출, 1991년 동부자바에 라이신을 생산하는 파수루안 공장을 준공한 이후 세랑, 줌방 등 인니 곳곳에 지속적인 바이오·사료사업을 확장, 지난해 약 7억 6천만불의 매출 실적이 보여 주듯 명실공히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매출 규모에 못지 않게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들로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CJ그룹의 전략적인 집중지역으로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하니 CJ 인도네시아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뉴스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CJ 인도네시아 본사를 방문, 정태진 상무(인니 경영지원), 박윤식 상무(인니 사료사업), 손용 상무(동남아 신규사업개발 담당)와 동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다음은 CJ 인도네시아와의 일문 일답이다.

CJ그룹 설립시기는?

1953년 설탕 제조업 제일제당으로 시작했다.

제일제당이 삼성그룹과의 분리시기는?

1996년.

2002년 제일제당에서 CJ그룹으로 사명이 바뀐 시기와 이유는?

식품회사에서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종합생활문화기업이란?

영화·홈쇼핑·생명공학 등을 아우르는 기업 이미지를 일컫는다.

CJ그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제일 좋은 종합생활문화기업’이다. 이 경영철학을 함축한 말이 바로 ‘온리 원(Only One)’이다.



CJ Indoensia는 자카르타의 Menara Jamsostek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Only One을 조금 풀어 설명한다면?

으로서 ‘최초의 것(The First), 최고의 것(The Best), 차별화된 것(Differentiation)’이란 세 가지가 핵심개념으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남들보다 앞서 하고, 경쟁사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제일 좋은 제품과 제일 높은 서비스, 곧 Only One을 제공해 고객과 주주, 임직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CJ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핵심사업군은?

식품,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신유통 등 4대 핵심사업군이다.

식품 사업은?

설탕, 밀가루, 식용유, 조미료, 육가공 등에서 시장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계열사인 CJ푸드빌을 통해 패밀 리레스토랑 〈빔스〉, 웰빙 씨푸드레스토랑 〈씨푸드오션〉, 고품격 카페 〈투썸플레이스〉,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소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 〈뚜레쥬르〉 등 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공학사업은?

고부가가치 바이오 제품인 라이신(사료용 필수 아미노 산), 쓰레오닌(동물성장촉진제), 핵산 등에서 세계 최고 의 생산량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사업은?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수년째 배급사 점유율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CJ CGV는 현재 전국적으 로 59개 상영관에 479개의 스크린을 보유, 또한 CJ인터 넷을 통한 영화, 공연, 게임사업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유통 사업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CJ오쇼핑과 제 3자 물류 및 택배사업을 하는 CJ GLS는 전세계 11개국 24개 해외법인 운영을 통해 점포위주 유통과 대비되는 경쟁력 있는 신유통 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4대 핵심사업분야 강 화 위한 방법은?

적극적인 인수 합병 (M&A)으로 신동방,한 일약품,플래너스 인 수(2004년), 삼성물산 의 HTH, 싱가포르 어 코드사, 미국의 옴니사와 하선정, 드림시티방송 인수 (2006년), 중국 얼상CJ 설립(2007년), 중국 베이다황CJ 설립(2007년) 등이 있다.

CJ그룹의 매출실적은?

2005년 8조원에서 2008년 12.6조원, 2013년 매출 38조 원에 영업이익 4조원, 해외매출 비중 35%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CJ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약 7억 6천만불의

CJ Indonesia 연혁

1988	CSA (CSI전신) 합작계약서 조인
1991	파수루안 공장 준공(Lysine, MSG)
1995	사료 공장 준공 (파수루안)
1996	라이신 1차 증설
1996	CJS(사료), CJI(핵산) 출범
1997	SUJA, 종계생산개시
1997	CJS, 세랑 공장(사료) 준공
1998	CJI, 좀방공장(핵산) 준공
1998	CSI, 라이신 2차 증설 준공
2003	CJI, 좀방공장(핵산) 증설 준공
2004	CJI, CSI 법인간 합병
2005	CJFJ, 사료 제3공장(좀방) 생산 개시
2006	CJ PIA 원종계 합작 법인 설립
2007	CJFJ 새우 사료 공장 준공 및 출시

매출 실적을 올렸다.

장기 목표로는 2020년에 2~3개 사업군에서 세계 1위 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CJ 인도네시아 설립시기는?

1988년 CSA (CSI전신) 합작계약서 조인 이후 라이신 공 장인 파수루안 공장 준공 이 그 시작이다.

건강,즐거움,편리를 창조하는 생활문화기업 CJ

- 4대 핵심사업군 역량 집중
- Only One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 2020년 2~3개 사업군 Global 1위...
핵산 · 라이신 부문 세계적 Bio기업 성장

CJ 인도네시아 주요 사업은?

바이오, 사료, 신규투자 사업이다. 현재 CJ 인도 네시아의 바이오 사업 중

핵산은 마켓점유율 세계 1위를, 라이신은 세계 2위를 점하고 있다.

바이오사업: 라이신(사료첨가제), 쓰레오닌(사료첨가제), 미풍(조미료), 핵산(풍미 향상제)

사료사업: 양계용 배합사료, 새우용 배합사료, 사료판매 확대 위한 종계농장

신규사업: 인니 내 신규사업 발굴 투자



자카르타에 위치한 CJ Indoensia 본사에서, (좌로부터) 정태진 상무(인니 경영지원), 박윤식 상무(인니 사료사업), 손용 상무(동남아 신규사업개발 담당), 김재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사료사업 전망은 어떤가?

CJ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5개국 14개 사료 생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현재 3,500억원 정도인 사료부문 해외매출을 2013년에는 해외매출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시키는 한편, 해외 사료 사업을 총괄하는 해외 사료지주사인 CJ Global Holdings를 세계 5대 사료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총 현지 고용인 수는?

파수루안 공장에서 약 1,300여명의 현지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며 그 외 6개 사업체를 합하면 약 4,000여명의 현지 고용 창출을 해내고 있다.

CJ 인도네시아 신규사업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CJ그룹의 전략적인 집중지역으로서 신규사업을 확대 예정이다.

우선 인니 자카르타에 Bakery사업 런칭을 시작으로 현지 유력 브랜드 인수 및 기타 한국 CJ외식브랜드를 단계적으로 런칭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현지기업과의 M&A를 통해 제약부분의 인니시장 본격 진출 할 예정이다.

한국 사료시장에 공급되는 팜박, 야자박 및 소맥피, 베이커리 원재료인 고무마 페이스트 등을 무역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인니 주요 지역에 물류 창고등을 건설, 소싱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CJ 인도네시아의 사회봉사활동도 두드러지는데?

1988년도부터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CJ는 'CJ의 나눔 정신'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부가 되었다.

나눔 정신이란?

CJ의 나눔 정신은 기업의 비전인 건강, 즐거움, 편리함을 바탕으로 크게 '건강지원분야 나눔' '즐거움분야 나눔' '편리분야 나눔' 등의 3가지 주요 활동이다.

건강지원분야 나눔이란?

건강증진활동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헌혈, 음식품 공급, 방역소독활동, 조류독감/신종예방에

CJ Indonesia 투자현황

법인명	설립연도	총투자	생산제품	근무인원
CJI (PSR공장)	1988	8억불	라이신 MSG 쓰레오닌	1,300
CJI (JB공장)	1996		핵산	350
CJS	1996		사료	400
SUJA	1995		종계	1,200
APE	2001		종계	150
CJFJ	2004		사료	350
자카르타				60
합 계				3,800

관한 상담등과 같이 다양하다. CJ 인도네시아는 의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무료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식품기업으로써 생필 음식품 및 고기를 나누고 Idul Fitri 및 Idul Adha와 같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행사때 필요한 음식과 고기를 직원들과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들에 후원한다.

즐거움분야 나눔이란?

장학금프로그램과 아동복지가 주가 되는 교육복지분야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근본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한국문화 수필대회 등 인니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해 양국의 문화이해 향상과 지역민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고아원 양로원 등 지원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편리분야 나눔이란?

남자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할레식, 깨끗한 물 무료 배부 및 우리 강을 깨끗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연재해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4년에 있었던 쓰나미 피해지역인

아찌지역에서 CJ인도네시아 자원

봉사단이 의료봉사 및 방역활동을 실시했고 한국의 본사에서 CJ햇반등 한화 2억원 상당의 물품과 인니법인에서는 10억 루피아의 현금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의 족자 카르타 지역에 일어난 지진에도 난민소에서의 이동진료와 같은 여러 봉사활동으로 아픔을 나눴다.



위: 2004년 수마트라 북북 아체지역을 휩쓸어 수십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체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CJ인도네시아는 한화 2억원 상당의 물품과 10억 루피아 현금을 기부했다.

아래: 의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무료 의로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아름다운 병원' 과 연계하여 최근 땅그랑 지역 한 마을에서 350여명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장면.

CJ 인도네시아 장기비전은?

바이오 사업은 전세계 핵산M/S 1위를 시작으로 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 생산 글로벌 1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빠수루안공장 확대 통해 트립토판 및 메티오닌 사업 진출 예정이다.

사료사업은 계열화 Value chain 을 갖춘 인니 최고의 사료축산회사가 되기 위해 사료시장에서의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계, 2차가공사업 진출을 통해 육계계열화 사업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위치 및 사업 내용



PT. Cheil Jedang Indonesia(Head Office)

Menara Jamsostek Lt. 21, Jl. Jend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12710
Tel: (021) 52995000(Hunting)
Fax: (021) 5299 5191-4

주요업무

- 인도네시아 CJ 바이오, 사료 사업장의 본사로써 사업장 경영지원 활동 업무 수행
- 인도네시아 내 신규사업 발굴 투자



PT. Cheil Jedang Indonesia(Factory)

Jl. Arjosari KM 9, Kec. Pasuruan 67181 Pasuruan, Jawa Timur.
Tel: (0343) 482 333(Hunting), Fax: (0343) 482768, 482788

생산제품

라이신: 사료 첨가제(필수아미노산)

- 원당, 당밀,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발효, 정제
- 수출 중심(유럽 40%, 아시아 30%, 미주 20% 등)

쓰레오닌: 사료첨가제(필수아미노산)

- 원당, 타피오카를 주 원료로 발효, 정제
- 수출 중심

미풍: 식품 첨가물(조미료)

- Tapioca를 주 원료로 발효, 정제
- 수출 중심(수출 60%, 내수 40%)



PT. Cheil Jedang Indonesia(Factory)

Jl. Raya Brantas Desa, Jatigedong Kec. Ploso Kab. Jombang 61543, Jawa Timur
Tel: (0321) 887 700, Fax: (0321) 887711~12

생산제품

핵산: 품미 향상제

- 전분, 원당을 원료로 발효·정제
- 주요 생산업체: 세계 6개 업체(세계 M/S 1위)
-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박윤식 상무

PT. Cheil Jedang Superfeed

Jl. Lanud Gorda, Desa Julang, Kec. Cikande, Kab. Serang 42101 Banten
Tel: (0254) 400660, Fax: (0254) 400659

생산제품

양계용 배합사료

- 옥수수, 대두박을 주원료로 배합생산
- 인니 로컬 판매



박용덕 사업부장

PT. CJFEED Jombang

Jl. Raya Mojoagung, Desa Gambiran, Kec. Mojoagung Kab. Jombang Jawa Timur
Tel: (0321) 497200, Fax: (0321) 497555

생산제품

양계/세우용 배합사료

- 옥수수, 대두박을 주원료로 배합생산
- 인니 로컬 판매



박윤식 상무

PT. Super Unggas Jaya

Menara jamsostek Lt.21, Jl Jend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Tel: (0254) 400660, Fax: (0254) 400659

생산제품

사료 판매 확대를 위한 병아리 생산

- PS → 달걀 → 부화 → 병아리(종계)
- 양계 농가에 공급



돌아온 장고



관문점 부근의 군사분계선 한가운데를 지나는 곳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명명된 200 미터 길이의 교량이 놓여져 있다. 1953년 휴전 직후 이곳에서 전쟁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연합군과 북한의 포로들이 이 다리 위에서 일단 방향을 정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1954년에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로버트 미тч(Robert Mitchum)과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가 주연한 ‘돌아오지 않는 강(River of No Return)’이라는 영화를 감상한 독자들이 간혹 계실 것이다. 골드 러시가 한창인 19세기 중엽의 캐나다 록키산맥 근처가 이 영화의 배경이며, 살인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하고 나온 콜더(로버트 미тч 분)는 잃어버린 아들 마크를 찾아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도박사인 웨스턴이 콜더의 총과 말을 빼앗아 달아나자 이 부자는 인디언의 공격에 대

응할 수 없는 막막한 처지에 이르고 만다. 결국 콜더 부자는 웨스턴의 애인이며 선술집 가수인 케이(마릴린 먼로 분)를 설득하여 웨스턴을 찾아 나선다. 콜더 부자와 케이이 뗏목을 타고 지나야 할 곳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급류가 심하고 인디언이 자주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 이 영화는 마릴린 먼로의 섹시한 매력과 로버트 미тч의 남성다운 터프함에 철저히 의존하는 스펙터클 영화이며 기타 반주에 맞춰 주제를 부르는 마릴린 먼로의 애잔한 목소리가 영화 애호가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서정적 서부극이다.

이와 같이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이 있는가 하면 ‘돌아온 장고’라는 표제 그대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1966년 제작된 이태리 서부극 영화로서 프랑코 네로(Franco Nero)가 주연한 <돌아온 장고; 원제, Jango>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 나선 총잡이의 고난과 복수극을 그린 특이한 장르의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유래하여 우리는 흔히 타지에 멀리 나가있다 새로운 각오로 돌아온 사람을 ‘돌아온 장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교민 사회에서도 ‘인도네시아 물을 한번 먹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이 한 인사회 초창기에 자카르타 한인 요식업계의 산 증인인 K사장이 오래 거주하던 자카르타를 떠났다가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자카르타에 돌아오면서 ‘돌아온 김삿갓’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최근 한국의 대표철강사인 포항제철사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짓던 공장을 멈추고 전격 철수한 지 1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진출한다는 소식에 최근 한인사회가 귀를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철강 지존도 인도네시아의 물을 한 번 먹었기 때문에 속설대로 다시 돌아오는지도 모른다.

철강에 관한 한 세계의 철강왕이라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84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로 이주했다. 어려서부터 잡다한 직업에 종사하던 그는 18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취직하였고 1865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침대차 회사, 철도기계 제조회사, 운송회사, 석유 회사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남기게 된다. 1872년 그는 에드가 톰슨 제철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철강사업에 뛰어 들었고 그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돈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키우면서 경영권만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1870년대부터 미국에 불기 시작한 트러스트(자본적 기업결합)의 붐을 타고 그는 피츠버그의 제철소를 중심으로 철광석, 광물,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망라하는 대 철강 트러스트를 형성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인수하였고 1892년에는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철강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을 2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부(富)를 축적하고, 후기에는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일생 동안

3억 달러의 기부금을 쾌척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 재단을 운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카네기가 산업화 초기인 ‘19세기의 철강왕’이라면 인도 북부의 하층민 출신인 락스미 미탈(Lakshmi Mittal)을 ‘21세기의 철강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1970년 고향에서 하층 상인계급인 부친이 운영하는 연산 5만 톤 규모의 가내수공업 형태의 철강공장에서 일을 배웠으나 인도 정부가 철강산업을 규제하자 1976년 가족 전체가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동부자바 시도아르조(Sidoarjo)에 소재하는 작은 철물 공장을 인수하여 이스파트 인도(PT.Ispat Indo)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회사는 연산 6만 톤 규모의 작은 공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연산 70만 톤의 전기로 조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9년에 들어 미탈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철강사 인수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미국의 ISG(International Steel Group)사를 합병하여 Mittal Steel 사를 세계 1위로 등극시켰으며 이후에도 캐나다 스텔코, 우크라이나 크리스보리 스틸, 중국의 후난발린 스틸을 차례로 합병 인수하게 된다. 그의 아들 아디티아(Aditya Mittal)는 명문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을 졸업한 후 부친의 가업에 동참하며 아르셀로를 인수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아르셀로 미탈 그룹(Arcelor Mittal Group)을 탄생시키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사와의 합병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6년에는 한국의 포항제철사까지도 넘보았으나 좌절된 전력이었다. 미탈 개인은 2009년 현재 190억불의 재산을 소유한 세계 8대 부호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을 제친 영국의 최대 갑부이며 2003년 1억1천7백만 불에 구입한 영국 런던 근교 켄싱턴(Kensington) 소재 저택은 세계 최고가의 개인저택이다. 1남1녀를 둔 그는 딸의 약혼식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치렀으며 2004년 치른 결혼식은 베르사이유 궁전보다 더 정교하게 지어졌다는 파리 근교 보르 비콩트 성(Vaux le Vicomte)에서 거행하였으며 결혼식을 치르는데만 총 5천5백만 불을 지출하였다.

2007년 기준 세계 철강 총 생산량의 10%를 점하며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두 시간 정도 자동차 페달을 밟으면 반쯤 주의 주도인 세랑(Serang)시를 조금 지나 찰레곤(Cilegon) 시내에 들어서게 된다.

그 시내와 인접하여 국영제철소인 꼬라까따우 스틸사가 우뚝 들어 서 있으며 이를 지나 곧장 해안 쪽으로 나가면 수마뜨라 섬을 연결하는 페리 선착장이 위치한 메락(Merak) 항구에 닿으며 그 바로 앞 바다에 꼬라까따우 화산이 보인다.

1883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에 일어난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만3천 배에 이르는 위력으로 3천 킬로나 떨어진 호주의 퍼스(Perth)에 까지 폭발음이 감지될 정도의 대 폭발이었으며 섬의 3분의 2가 소멸되며 이때 동반된 쓰나미로 인해 3만6천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1927년에는 그 인근에 새로운 화산이 생성되어 Anak Krakatau(Krakatau's Child)라고 부르고 있다. 사진은 폭발 당시의 꼬라까따우 화산 스케치.

60개국에 32만 명의 직원을 두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그룹사로 우뚝 선 아르셀로 미탈사에 합병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2위 그룹의 신일본제철사나 포항제철사의 분투는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아르셀로 미탈사가 2010년에 자신의 고국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인도에 200억불을 투자하여 연산 24백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이방인인 한국의 포항제철사도 같은 해에 120억불을 투자하여 연산 12백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인도에 짓는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포철의 반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던 베트남 프로젝트 진출이 보류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8년 IMF사태 직후 철수하였던 인도네시아에 재진출한다는 소식이 수 차례 인도네시아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자 신문을 보면 포철본사의 임원 일행이 합작법인 꼬라까따우 스틸사(PT Krakatau Steel) 사장과 공업부 장관인 화흐미 이드리스(Fahmi

Idris) 장관을 면담한 직후, 인도네시아 측은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10월을 목표로 합작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언론에 흘려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 50억불을 투자하여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연산 2백5십만 톤 규모의 공장을 단계적으로 두 라인을 건설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다. 한국의 국책기업인 포철이 이곳에 진출하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30년 전 현대건설에 의해 완공된 자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 의해 모범공사의 대명사로 칭송을 받듯이 한국의 위상은 한층 격상될 것이다. 합작법인 꼬라까따우 스틸사는 당시 빠르파미나사가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투입되어 1970년 독일 지멘스사의 기술에 의해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애초 외국기업에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을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대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기에 몰아 닦친 금융위기로 인해 이마저 난관에 봉착하자 신규투자를 수용하여 철강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 포철의 제철소 건설 예정지인 반덴(Banten) 주 찰레곤(Cilegon) 시에는 1998년 건설 시작단계에서 급거 철수한 그 부지가 ‘돌아오는 장고’를 기다린 듯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재작공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연착륙이 예상된다.

한편 포철이 등지를 틀고자 하는 찰레곤 시 인근지역인 보자너가라(Bojanegara)에 50억 불짜리 정유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다. 이란의 국영회사인 Iranian Oil Refining Industries Development Company, 빠르따미나사(PT.Pertamina), 말레이시아의 Petrofield사 등 3사가 각각 40%, 40%, 20% 지분참여 형태로 Banten Bay Refinery사를 설립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직전에 한국기업인 STX Panocean사가 합작 투자선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뒤늦게 제출하여 현재 협상 중이라 한다. 그런데 상기 STX

린 명성과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삼아 이곳에 정유공장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약을 꾀하는 것 같다. 찰레곤(Cilegon), 메락(Merak), 안예르(Anyer), 보자너가라(Bojanegara)를 잇는 중화학 공업단지는 1980년대 이래 인도네시아 최대의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왔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동진 세미컴, 대경중공업과 같은 한국계 중소기업들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포철이나 STX Ocean사가 나란히 진출한다면 그 다운스트림(Down Stream) 파급효과로 인해 더 많은 한국 하청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또 하나의 한국 타운이 조성될 것이 명약관화 하게 보인다.

1942년 3월 1일 새벽 자바 점령군인 일본군 제16군의 주력부대가 막강한 해공군력과 잘 훈련된 육군을 앞세워 자바 섬 북서부 해안지역인 보자너가라, 메락, 찰레곤 지역에 처음 상륙하여 불과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전 자바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지만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은 자바의 관문, 아니 인도네시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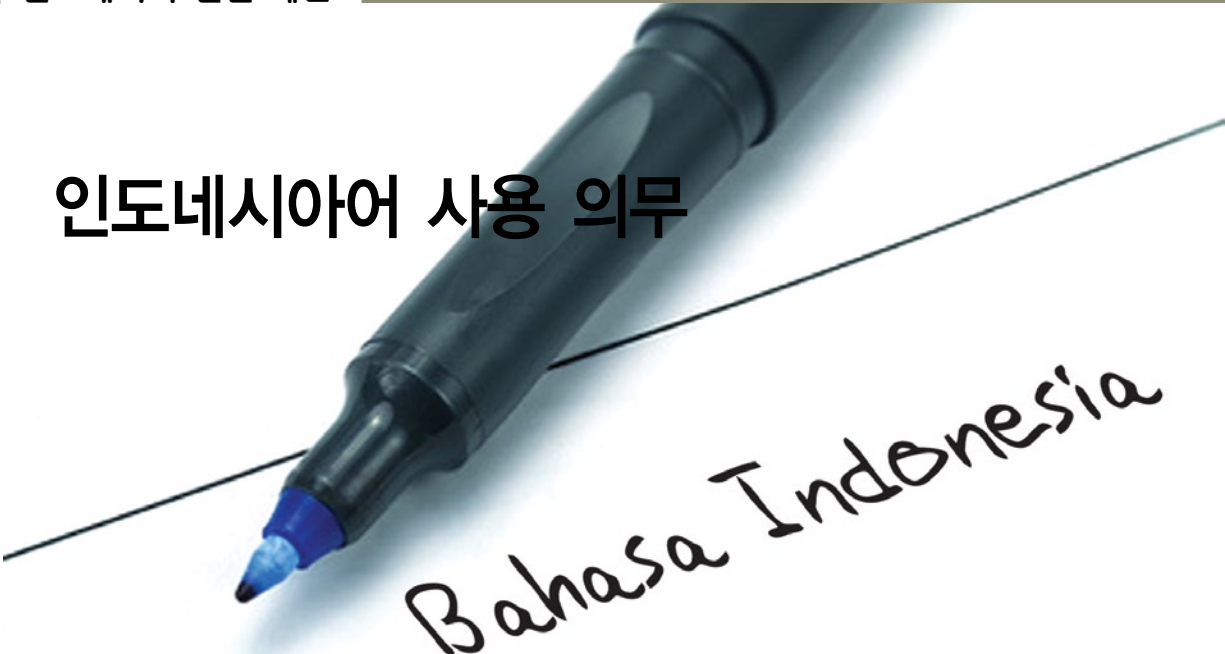
포철의 자체기술력에 의해 2007년에 준공된 세계 최초의 파이넥스(Finex) 공법의 제철소 전경. 이 신공법의 설비가 추가되어 포철의 조강능력은 연산 3천3백만 톤으로 늘어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에 이은 세계 3위의 제철소로 올라 서 있다.



Panocean사는 40% 지분의 최대주주 자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생산 품목을 기존의 휘발유에서 아스팔트로 전환할 것과 미화 43억불이 소요되는 2개 생산라인(Two Train) 대신 30억불 정도로 계상되는 1개 생산라인(One Train)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STX Panocean사의 통합 전 상호인 범양상선(Panocean)은 3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해운업으로 진출하여 쌓아 올

래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이라는 깃발을 들고 그 지역에 상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아무쪼록 한국의 상징적 기업인 두 회사가 계획대로 이곳에 진출하고 그 하청기업들이 줄을 잇게 된다면 한인사회가 한층 성장하고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Bahasa Indonesia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2009년 7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기, 국어, 국장 및 국가에 대한 법률 2009년 법률 제24호를 공포와 동시에 발효시켰다. 상기 법률의 내용 중 국기, 국장 및 국가에 대한 내용은 동포 사회 및 진출 기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국어인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은 동포 사회 및 진출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상기 법률 발효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정부 기관, 사기업체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관련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혹은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도네시아어 이외에 해당 외국인의 공식 국어 혹은 영어 병기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서 양해 각서 혹은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는 의무 뿐 만 아니라, 사기업체에서 정식 업무에 관한 일상 대화에도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는 근로자에게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지 않거나, 공식 업무에 관한 대화를 인도네시아어로 하지 않았거나,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는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는 근로자에게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키지 않았으면,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손해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사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과 일상 업무 대화에 까지 제도적으로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어 구사력을 향상시켜 인도네시아어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상황이다.

1.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사용 지역

현재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 전역, 싱가포르, 브루나이, 띠모르, 필리핀 남부 일부 지역 및 태일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 이르고 있다.

2.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법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해야 한다

3.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기재해야 한다

4. 대통령, 부통령 및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혹은 해외의 공식 연설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해야 한다.

5. 모든 공식 교육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의 교육 혹은 특수한 목적의 교육은 예외로 한다.

6. 모든 정부기관의 민원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처리해야 한다.

7. 국가의 기관, 정부의 기관,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관련된 모든 양해 각서 혹은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의 국어 혹은 영어로 병기할 수 있다.

7.1. 한국인 혹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외자 투자 승인서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은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이 회사는 한국에 있는 본사 혹은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하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고 한글 혹은 영어로 병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현지 법인이 인도네시아 회사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하며 영어를 병기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회사와 인도네시아인 직원과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한국인 직원과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고 영어 혹은 한글을 병기할 수 있다.

7.2. 상기 법에서 의미하는 계약서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기관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8.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내 혹은 국제 Forum(공개 토론회)에서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9. 관공서 혹은 민간 분야에서 업무에 관한 공식 의사소통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해야 한다. 한국인 혹은 한국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 혹은 한국인 혹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투자 승인서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 뿐만 아니라 Representative Office 에서도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식으로는 이해

가 가지 않는 규정이나 법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어로 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10. 관공서 혹은 민간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아직 인도네시아어 구사력이 없는 자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해야 하여, 사용자(회사)는 아직 인도네시아어 구사력이 없는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켜야 한다(*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한국어 구사력을 테스트하듯이 머지않은 장래에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어 구사력 검증 제도 시행이 예견된다)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AS INDONESIA**

BIPA PROGRAM
INDONESIAN FOR NON-NATIVE SPEAKERS

Language :

PROGRAMS METHOD & INSTRUCTORS ADMISSION PROCEDURE TUITION FEES SCHEDULE

REGULER PROGRAMME

There are three levels of study with individual curriculum and goal.

- 1. Elementary Level (BIPA 1)**
The elementary level aims at giving basic competence to use Bahasa Indonesia with an emphasis on conversational skills, both formal and informal. Cultural awareness will also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skills.
- 2. Intermediate Level (BIPA 2)**
At the intermediate level, participants learn to employ different styles of spoken and written Bahasa Indonesia as well as to study Indonesia's state, administrative and citizenship systems.
- 3. Advanced Level (BIPA 3)**
At this level, participants learn to participate in discussion, write essays in Indonesian, and study topics related to Indonesian society and culture (e.g. history, religion, and tradition, etc).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Public Relations Office
UI Campus, Depok 16424
Telp. (62-21) 727 0009
Fax. (62-21) 727 0038
Email: humas1@fhu.ui.edu
Working hours: 08.00 am to 04.00 pm
Monday to Friday

BIPA PROGRAM

For the Regular Program, BIPA provides three

11. 민간단체 혹은 개인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한다.
12. 학술 논문 및 학술 공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특수한 분야에 관한 학술 논문 및 학술 공보는 지방어 혹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13. 인도네시아의 지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Borneo로 표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Kalimantan으로, Celebes는 안되고 반드시 Sulawesi로 표기하라는 뜻이다.
14. 건물의 이름, 도로의 이름, 아파트의 이름, 주택단지의 이름, 오피스 빌딩의 이름, 상가의 이름, 상표, 사업체의 상호, 교육 기관의 이름, 인도네시아인 혹은 인도네시아의 법인이 설립한 조직의 이름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15. 인도네시아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 국산품 혹은 수입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어로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 제품 설명서에 외국어 혹은 지방어를 병기할 수 있다.

16. 일반 안내 표지, 도로 표지, 공공 시설 표지, 플랑카트, 공공 봉사 안내판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하며 지방어 혹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17. 메스 미디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하나 특수한 목적 혹은 목표를 위해 지방어 혹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상기 법의 시행령은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정한다.
19.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
- 19.1. Depok 소재 인도네시아 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 / UI) 내 BIPA 과정(3학기 정규 과정)
 - 19.2. 사설 학원 및 개인 교수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여러분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인이 건네준 신발을 신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출국하다가 그 밑창에서 헤로인 2.1kg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해외교포인 박모씨는 큰 돈을 주겠다는 아르헨티나 마약 조직에 속아 비닐로 포장한 코카인 1kg을 삼킨 채 운반하다가 독일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연기자 지망생 이모씨는 일본에 관광을 갔다가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복용하고 그 일부를 몸 안에 숨겨 들어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낯선 타지에서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조직원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 마약범죄 조직원들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거액의 사례금 또는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마약 운반을 부탁합니다. 특히 운반 대상을 섬유원단이나 광물 샘플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거예요.**” 유흥주점에서 피로회복제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술에 타서 권하거나 흡연하도록 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가방 좀 들어주실래요?**” 항공기를 놓쳤거나 휴대품이 너무 많아 혼자 다룰 수 없다면서 마약이 숨겨져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마약의 유혹, 단호하게 뿌리치세요!

마약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요 남용 마약의 종류 및 특성



필로폰 중국에서는 병두, 필리핀에서는 샤부라 불리며, 유흥업소에서 술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연기로 흡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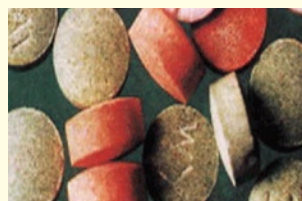
엑스터시 알약 또는 캡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본이나 태국 등지의 클럽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며, 최근에는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케타민 ‘스페셜 K’라고도 불리며 엑스터시의 대체물 또는 엑스터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조물로 사용됩니다. 코로 흡입 또는 연기로

태우거나 술에 타서 마십니다. 기억손상, 운동기능 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아바 원산지는 미얀마이며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유통됩니다. 알약 형태이며 필로폰과 같은 성분에

카페인 · 코데인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대마초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 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THC라는 환각성분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마초는 기존 대마초를 개량하여 환각효과를 높이므로 부작용 또한 더 큼니다.



아래 사항은 우리 교민이 출입국 하거나 체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평소 사전 확인 및 절차를 숙지하시어 향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니대사관 영사과

● 공항 입출국 시 유의 사항

1. 여권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여권 페이지도 비자 부착 란과 입국 심사인 받을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 ▶ 공항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 함

2. 도착비자 개념 및 활동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도착비자는 관광, 방문, 상용, 회의 참석 등 활동이 가능함, 다만 상용의 개념 해석이 모호하나 영리활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는 가능

- ▶ 도착비자로 특정회사를 방문했다는 사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 방문 후 상담, 시찰 등은 가능하다는 이민청 유권 해석 있음
- ▶ 다만, 취업 비자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도착비자나 단기상용비자를 받아 출입국하는 것은 체류 자격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음(소급 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번만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 도착비자는 연장, 기타 자격으로 변경 허가되지 않으며 체류기간도 입국 당일을 포함

3. 체류허가기간을 넘기고 출국하려는 경우와 입국 신고서 분실 시

- ▶ 체류기간 도과의 경우도 2가지 유형이 있음, 즉 60일 이하의 경우와 60일을 초과 한 경우임
- ▶ 도착비자나 사회 문화 비자를 소지한 후 60일 이내 기한 도과의 경우 20불/1일 환산 부과하여 출국조치하나 60일 초과 된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함
- ▶ 출국 심사 시 출입국신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과태로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나 당황하지 말고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과태료조항 없음)

● 체류 중 유의 사항

1. 방문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시 유의 점

- ▶ 방문, 상용 목적의 비자도 사회 문화 비자로 통합되어 발급되며 반드시 초청자나 스폰서가 필요함, 이에 따라 연장 신청 시에도 최초 초청자나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장 신청 시 유의 할 것 (특히, 대행 업체에 의뢰 시 처리 방향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것)
- ▶ 상용비자의 경우 2개월 체류 후 연장 신청 시 대부분 체류목적의 의심받게 되므로 2개월 이상 장기 체류 하며 상용활동을 할 경우 특히 유의(일단 연장 조치를 해준 후 사후에 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음)

2. 체류지 신고사항 준수

- ▶ 도착비자나 사회문화비자(2개월 이내)를 소지하고 입국 하였을 경우 숙소를 제공한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동, 통장)에 신고토록 되어있음-호텔 투숙 경우 숙박카드작성(출입국관리법제60조)
- ▶ 동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이나 경찰이 다른 사유로 입건한 후 특이사항 없을 경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음

3. KITAS 소지자의 연장 시기나 재입국 허가 문제

- ▶ KITAS기한 연장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유효해야 연장이 가능하나 대한민국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갱신 신청(연장 제도 폐지)해야 하므로 최소 2주일 이상 기한을 두고 여권 신청을 하여야 함
- ▶ KITAS는 체류기간 허가를 받은 것일 뿐 그 기간 내에 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평소 외국에 나 갈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 하지 않다가 연휴기간이나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일시 출국 할 경우 낭패를 겪는 사례 빈발)
- ▶ 재입국허가를 받은자가 허가 기한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원래 체류허가(KITAS)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입국해야 하며 기한내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인니대사관에 사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

4. 2가지 이상 직책 겸직 금지

- ▶ KITAS 상 허가 받은 직책이외 다른 직책을 겸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간혹 가정주부들이 직업활동을 할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됨
- ▶ 교민 정서 상 같은 회사 내 에서 임시로 다른 직책을 겸한다고 문제 될 것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 조항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처벌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5. EPO (출국허가)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출국기한 엄수

- ▶ 체류기간 종료 후 또는 회사 변경등 사유로 출국허가(EPO)를 받아 출국할 경우 통상 일주일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나 그 기한을 넘긴 후 출국 할 경우는 벌칙조항이 상이 함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1일 2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KITAS 소지자가 출국허가를 받은 경우 달리 적용 하여 막대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음)

6. 재외국민 등록의무 이행

- ▶ 재외국민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유사시 연락망, 국내 재산권 행사, 재판, 자녀 특례입학 문제,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특히 제3국 영주권 신청 시 체류국가의 신원증명 기초 자료로 활용 됨
- ▶ 귀국 후 재외국민등록부가 필요하여 소급하여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함



北 임진강 방류사건과 이중전략

홍관희(고려대 북한학 교수/국방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9월 6일 북한의 임진강 방류 사건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됐다. 일부에선 “만(滿)수 위라 불가피한 긴급방류였다”라는 주장도 있는 듯 하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황강댐 방류 직전 평상시 수위를 유지중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방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 병사 10여명이 황강댐 방류 하루 전인 5일 군사분계선(MDL)까지 내려와 2시간 가량 정찰하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물폭탄 방류와의 연계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불과 1개월 전부터 대남 및 대미 평화 제스처를 취해 온 북한당국에게 이번 참사는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 전략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이중전략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임진강 참사 이틀 전인 9월 4일에는 UN안보리에 느닷없이 서한을 보내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추출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썽 많은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관련, “우라늄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자인(自認)해 2차 핵위기를 야기한 후, 이듬해인 2003년 1월 “농축우라

늄 계획은 미국 적대 세력의 날조이자 농간”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7년 동안 부정하다가 이번에 스스로 인정하고, 그 정당화를 기도하고 있다.

美 의회 일각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불변하는 대외도전 전략 등을 들어 지난 해 10월 미국이 삭제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외에 북한은 최근 특수부대를 18만 명으로 6만 명이나 증강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증대를 도모하면서도, 북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에 대해 “북침전쟁 훈련”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인다. 소련자료로도 입증된 6·25 남침을 아직도 ‘북침’이라고 우기며 대남 선동에 집중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 “북남관계 정상화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던 북한이 임진강 도발 직후, “李명박 역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반역자”라고 운운하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대남 화해 제스처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투적인 기만과 협박 및 화해 제스처를 반복하는 북한의 이중전략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번 임진강 사건으로 북한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한미 양국과 국

제사회는 UN결의 1874호를 토대로 대북 경제·금융 제재를 시행 중인 바, 북한이 받는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8월 중 지속된 화해 제스처와 임진강 방류 및 핵무장 협박도 한미 제재공조를 무너뜨리고 그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책략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올인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등 벼랑끝 전술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와 타협은 없다”며 대북제재를 주도해 왔으나, 군사적 옵션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대화를 줄기 차게 요구하는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핵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핵저지, 제재지속, 관련국 협의 등 원칙하에 미북 양자 대화를 준비 중이나, 북한은 핵포기 불가, 先 양자회담 후 6자회담 복귀, 핵보유 인정, 美제재 계속 땀 3차 핵실험 등의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북 대화는 시간벌기와 지리멸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이중전략이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임진강 방류와 같은 北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하에 대북제재를 지속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지렛대를 살려나가야 한다.

대한항공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1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45	20:45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10	11:15	일/월
		01:20	09:25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8:05	00:01+1	월~금
		19:50	01:50+1	토/일

2. 기간: 2009. 3. 29~

또한 2008년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The 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8차 세계한상대회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Hansang, the Future Hope of Korea !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7일 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한상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됩니다. 교민 기업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개요

- 가. 기 간: 2009년 10월 27일(화)~10월 29일(목)
- 나. 장 소: 인천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
- 다. 규 모: 내·외 동포 약 3,500 명
- 라. 주 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 마. 주 관: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바. 슬로건: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등록안내

- 온라인: 대회등록사이트(www.hansang.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한상대회본부사무국에 신청
- 사전등록 기간: 2009. 5월 ~ 7월 31일

□ 등록비 및 등록비 포함내역

국외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09.7.31까지	2009.10.27(대회당일)
등록비	USD 350	USD 450
등록비 포함내역	① 숙박제공 : 2009.10. 27 ~ 29 (3박, 2인1실)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USD 350 추가부담 ②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③ 식사제공 : 총8회 - 행사장 : 10. 27 만찬, 10. 28 ~ 29 오·만찬 - 숙소 : 10. 28 ~ 30 조식 ④ Convention Kit, 한상기업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 등록비 지불 방법

등록비 납부 계좌

구분	국외 참가자	국내 참가자
은행명	Hana Bank Seocho-Nam Branch	하나은행
계좌번호	224-910002-55132	224-910001-89805
예금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Swift code	HNBKRSSE	
은행주소	1354-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 등록 취소 및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에 관한 취소 및 변경 사항은 서신으로 작성하시어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하여 2009년 9월 30일 까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30까지 100% 환불 / 2009. 10. 1부터 환불 불가

*환불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대회가 끝난 후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진행.

*환불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환불자 부담.

□ 등록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와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등록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등록확인증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82-2-3415-0150

팩스: 82-2-3415-0118

이메일: hansang@okf.or.kr

담당: 재외동포재단 한상팀 오은아 대리



인도네시아 학부모 되고 세 번 놀랐다

글/사진 김 성 월
hansol0508@hanmail.net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학부모 되고 세 번이나 놀랐다.

첫째, 성적표는 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생님께 받는다.

둘째, 졸업식장에서 박수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셋째, 외국인이면 입학할 때 주의 할 것과 알곳은 입학식.

낯선 나라, 인도네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또 아이들을 '로컬학교'에 다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학교'에 다니게 할 것인가,'란 두 갈림길에 서서 갈등도 빚었다.

무슨 일이든 100% 좋은 것도 없지만 100%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로컬학교에 다니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는 것과 모두가 외국인인 국제학교보다 귀한 외국인 대우받으면서 다닌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하기 나름이지만, 여러 가지에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로컬학교지만 좋다는 사립학교로 갔다. 교무실로 가는데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과 내 아이들을 뒤섞여 놓는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그리 쉽게 허락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복을 입

혀놓고 보니 저절로 그들과 같아져 버렸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 일수도 있다. 그러나 미안함은 울통불통한 삶의 굴곡을 서로 나눠가지는 것이기에, 그 울통불통함을 차라리 아이들과 나눠 가지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이정표 세워가는 것도 값진 교육이라 나는 생각하고 결론지었다.

성적표는 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생님께 받는다.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는 성적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진급과 유급이 있다. 그래서 성적표를 아주 소중하고 신중하게 여긴다.

“엄마. 이번 금요일 아침에 성적표 받으러 학교에 꼭 와야 한다.” 딸아이가 말했다.

“왜, 너 학교에서 일 저질러서 성적이 엉망이니? 그래서 엄마가 성적표 받으러 학교에 가야 하니?”



교사와 학생 학부모 성적표를 두고 면담 중

“아니 모든 학부모들 다 직접 받으러 와야 한 데.....”

맨 처음 아이에게 이 소리를 듣고 나는 ‘거 참 이상한 학교네’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부모가 직접 성적표 받으러 학교에 가는 일, 한국에서 학부모였고 운영위원회까지 해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요즘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한국이었고 여긴 인도네시아다. 어디든 비슷하겠지만 해마다 방학시기가 같아 성적표 받는 날짜는 항상 같은 날로 겹쳤고 나는 세 장의 성적표를 받으러 초, 중, 고등학교로 바쁘게 다녔다. 내가 의아해한 것은 대낮에 성적표 받으러 온 학부모들 중에서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복 입은 공무원, 군인, 경찰들도 눈에 띄었다.

성적표를 나눠주는 방법은 학생의 출석번호대로 아니고 성적순 아니고 도착하는 차례대로 성적표를 받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은 성적표와 출석부를 동시에 펴놓고 출석부 학생이름 옆에 부모에게 사인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학생의 성적표를 펴놓고 담임과 학생과 학부모 셋이서 머리를 맞대었다. 면담이 시작되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설 무렵 나는 선생님께 질문 드렸다.

“왜 성적표를 학부모가 직접 와서 받으니까?”

“성적표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까?”

“한국에서도 성적표는 중요하죠. 하지만 부모님께 전달하라고 학생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네, 저흰 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적이 좋고 나쁜은 학생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 결실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 내 생각에도 그건 확실한 정답이었다. 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선생님들은 가르침과 학생의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조화를 이루는 귀중한 만남의 시간이니까. 1학기 때는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모습이 그런대로 평온하다. 그러나 매년 2학기 성적표 받는 날 복도구석에서 울고 있는 학생은 유급된 것이고 웃는 재잘거리는 학생은 진급이 된 것이다. 성적표는 한 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 권의 노트로 돼 있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성적표는 곧 ‘나라의 문서’ 라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다가 딸아이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잃어버린 적 있었는데 학교에서 분실신고를 경찰서에 가서 하라고 해서 내가 신분증 분실신고처럼 했고 그 서류를 받아 학교로 제출하여 학교로부터 다시 성적표를 받은 적도 있다.

졸업식장에서 박수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졸업식, 하면 추운 날씨와 수북하게 쌓인 꽃다발 풍경이 떠오른다.

한국 학교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졸업식 날에는 생화들이 준비하지만, 인도네시아 학교들은 일 년 내내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한 학교당 졸업 못하는 학생이 매년 2-10명 정도 있다. 모두 다 졸업하는 학교도 있고 몇 년 전 졸업기적인 일이었는데 족자카르타시 모 고등학교 졸업반 전 학생이 유급되어 된 사실도 있었다.

졸업식장에 참석해 본 나는 희망을 키우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꽃이 만발해도 졸업식장에는 꽃다발이 하나도 없다. 내가 ‘꽃다발을 가져갈까?’ 하고 물으면 아이는 ‘어색하다’며 그냥 놔두라고 했다.

내가 참석한 졸업식장은 무슨 경매장 같기도 하고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미 말한 바대로 인도네시아학교는 진급 유급이 있다. 그런데 그 유급이 졸업반인 학생들에게는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것 같았다.

졸업식장에서 순서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고, 담임이 봉투를 개봉하면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여 조용해진다. 담임은 단상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00번 통과 00번 통과.....’ 이렇게 발표한다. 다시 말하면 졸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다. 3학년 전교생 수백여 명이지만 단상에서 일일이 성적을 공개하는데 한 반의 성적 공개가 끝나고 100% 졸업이면 박수가 운동장을 가득 메운다. 그러나 담임의 발표에 한 학생의 낙오자라도 나오면 박수 치려고 준비하던 손을 얹전히 내려야 한다. 또 학교마다 약간의 배려가 있는데 성적표 봉투를 교육청으로부터 졸업식 전에 받은 학교는 봉투를 개봉하여 유급자에게 졸업식장에 참석하지 말 것을 미리 통보해 준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해가 간다. 졸업식장에서 박수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는데 이런 상황에 꽃다발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 문교부의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제도에 인도네시아교사 학생 학부모 이미 훈련이 돼 있었고 몇 년을 겪어 본 나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인도네시아학교 졸업식에는 전 교사들이 한 줄로 서서 일일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과 악수하고 더러는 껴안아 주는 모습이 좋았다.



■ 대학입학에 관하여

인도네시아학교는 중·고·대학교 모두 기부금제이며 입학금은 성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학교 입학 과정을 설명하자면 수능시험(SPMB, UMB)을 치게 된다. 지원한 대학에 수능성적으로 합격하면 입학금이 기본금이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3배의 금액을 더 지불하게 된다. 물론 학교마다 등록금의 차이는 있다.

중·고등교육을 하지 않아 수능시험 볼 실력이 안 되지만 ‘외국인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수능시험으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5배의 입학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as Indonesia)에 한국학생이 수능(UMB, SPMB)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1천만 루피아였다. 학기마다 5백만 루피아씩 지불하여 일 년에 천만 루피아를 지불한다. 그러나 외국인 특례로 입학한 또 다른 한국인 학생은 입학금이 5천만(약 5,000\$) 루피아였고 학기마다 2천5백만(2500\$)루피아씩 일 년에 5천만 루피아를 지불한다.

우리 딸아이가 수능으로 합격하여 등록하러 갔더니 대학교에서 “너 외국인이니까 등록금이 더 비싸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딸아이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졸업했고 제 실력으로 제1차 수능성적으로 합격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이 비싸야 한다면 총장님이나 학장님께서 해명해 주세요”고 했더니 대학교 측에서 잠잠해졌고 딸아이는 원래 시스템대로 아주 싼 학비로 대학교에 다녔다. 만약 그때 꼼꼼히 따지지 않고 국적이 외국인이니 “네” 했다면 아주 비싼 등록금으로 입학했을 것이다.



여러 갈래로 머리 묶은 남고생들

인도네시아학교들은 입학식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희한하며 감동적이고 스틸 있는 일도 많다. 중·고등학교는 입학식 다음날부터 모스(Masa

Orientasi Sekolah)라 하여 요상한 행사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지만 상급생들 중에서 간부급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 교가가 아닌 ‘모스가’라는 주제곡까지 부르면서 한다. 인도네시아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종의 ‘홍역’ 같은 것이다.

입학 후 새로운 학교와 교복을 입고 희망에 부풀어 마음이 붕 떠있는 학생들에게 알곳은 숙제와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 게다가 가장행렬 못지않은 모양새로 길게는 일주일씩이나 한다. 남자고등학생에게 여러 갈래로 머리를 묶어오라고 하질 않나, 짹짹 양말에 박스나 포대기를 가방대용으로 메고 그것도 모자라 장식품으로는 병뚜껑을 진주목걸이처럼 주렁주렁 달아서 새벽에 등교하라고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한다. 도시락의 내용물은 숙제의 일부분으로 똑같아야 한다. 이를테면 볶음밥 다섯 가



지 색깔과 반찬으로 흰자에 노른자 두 개 터지지 않은 것 후식으로 바나나 10cm, 사탕 RP100짜리 하나 사고 영수증 받아오기..... 등등이다. 모스 때 그런 준비물로 가득 채워진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치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호그와트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 같았다.

그렇다면 대학교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대학교에서는 모스를 ‘오스팩’(Orientasi Studi dan Pengenalan Kampus)라고 한다. 현장에 가보았다. 대학교는 학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볼 수가 있다. 신입생들에게 해피망측한 걸 왜 하는지 또 모스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자 브라위자야대학교 헤르만 법대 학장님을 찾아갔다.



“학장님도 모스를 겪었습니까?”

“네 저희들은 요즘 학생들보다 더 심하게 겪었습니다.”

모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와 일본정부에 의해 지배 받을 당시 평민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신분의 차별을 이용하여 교내기강확립 한다며 심한

훈련을 시키면서 비릇되었다고 한다.

그 후 군인학교에서 대학교로 퍼지면서 의무화되었고 다르게 바라보면 학생들이 학교 규칙과 공부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려는 의도이며 지금의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모스로 전해진 것이다.

입학시기가 되면 거리의 미치광이 부대들이 행진하는 것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사실 당사자들은 고역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고 내가 그랬으니깐. 그러나 고역인 만큼 값지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만은 아빠엄마와 자녀들 사이가 인생의 선후배가 되어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세월의 벽을 허물어 주는 대화라고 말했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산다라 박을 아신다구요?



승희의 영어가 많이 나아졌다. 발음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인지 매사에 발음 가지고 잘난 척하며 내가 영어라도 쓰면 후졌다고 구박이다.

지영이는 중국어 연극에 선생님이 뽑혔다. 대사가 많다고 투덜거리지만 내 눈에는 그저 대단하다. 승희도 같은 중국어 선생

에게 수업을 받는데 중국어 선생이 승희에게 '동생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나?'고 한 걸 보면 제나가 중국어에 열심인 건 분명하다.

영어로 도를 닦는 중인 승희는 중국어는 안중에도 없기에 그런 선생이 짜증난다고 투덜거리지만 모든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알아보는 법이다.

하긴 지영이는 천생 모범생이다. 목까지 교복 단추를 채우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그렇다. 사실 승희는 시어머니 성정을 많이 닮았고, 지영이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우선 얼굴부터가 전쟁 통에 헤어져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시어머니 닮았고, 어투와 성격도 같다. 말없이 막내를 챙기고, 머리를 곱게 묶어 준 후 학교엘 가는 걸 보면 의젓하기까지 하다.

지영이 역시 이제 학교생활은 완전 적응이다. 처음에 짧은 영어 덕에 'Swimming' 단어만 겨우 알아듣는 상황에서 수영할 줄 안다고 손

들었다가 사색이 된 얼굴로 열결에 수영대표선수로 나간 일화가 있는 지영이를 생각하면 용 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SIS는 각 종목마다 학년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을 선발 한다. 한국에서 수영을 접영까지 끝내서, 아빠보다 수영을 잘하는 승희는 단지 햇볕에 타기 싫고 귀찮아서 수영대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온 승희가 동생에게 말했다.

“너 내일 수영대회 나가지?”

“어? 아녜데.....”

갑자기 지영이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울 것 같았다.

“너 바보 아냐? 우리 팀 수영선수로 저학년에선 나가 나가는데. 명단이 벽에 붙어 있었어.”

“?”

지영인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듯 나를 본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다. 극 소심한 지영이가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영선수로 출전을 해서 수영을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였다.

“어, 나는 그냥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손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영이는 제가 수영대표선수가 된 걸 혼자서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이 코미디 같은 상황에 웃음이 터지려고 했다.”니가 잘 못 들은 거야”



유준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승희는 우스워 죽겠단다.
나 역시 웃음이 나오긴 마찬
가지다. 평소의 성격이라면
결코 스스로 수영대회에 나
가겠다고 손들 지영이가 아
닌데, 영어가 잘 안 들려서
손을 잘못 든 바람에 졸지에
수영 대표선수가 됐다.

지영이는 한동안 심각한
얼굴이더니 아빠와 함께 아
파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25미터를 두 번씩 왕복했다. 다행이 한국에서 수영을 가르쳐
서 무리는 없었다. 단지 담력의 문제가 좀 있을 뿐이었다.

나중에 다른 학부형으로부터 들은 이야긴데 그날 지영이
는 오학년 여학생과의 시합에 출전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언
니 수영복을 입어서 더 작고 말라 보이는 지영이가 덩치 큰
오학년 여학생에게 지지 않고 수영을 하자 모두들 지영이를
응원했다고 한다.

“제 수영복도 아닌 것 같은 큰 수영복을 입고, 전혀 수영할
것 같지 않은 자세로 서 있던 애가 갑자기 물어 뛰어들어어서 달
리니까 너무 감동적 이드라고요.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우리
모두 지영이만 응원했는데.”

글쎄 말이다. 나는 왜 안 갔을까? 아마 막내 유치원 때문에
못가는 걸 알고 지영이가 오라고 하지 않은 거 같다.

그 이후로 지영이는 반 아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됐다. 왜소한 체격의 지영이가 수영 잘 하
는 아이로 변신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
에 벌어진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지영이는 여전히 친구들에 줄 김을 매일 두 개씩 가지고 간
다. 말레이시아인 하디라와 네덜란드인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이다. 얼마 전에는 일본아이, 싱가포르의 엄마인 요시의 전화를 받
고 학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다. 교실을 꾸미는 일이었는데
내가 한 일은 종이를 자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국학부모들은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답장이 없어서 무척 긴장되고 불편하
다고 했다. 다 그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서 그냥 나도 알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다. 사실 나부터도 선생님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는 어려운 일은 SIS에 계신 한국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다. 그분은 영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더구나 SIS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한국과 교육 방법
이나, 학제 같은 측면이 많이 비슷해서 선호를 하는 편이라 한
국학생을 학교 측에서도 배려를 하려고 노력중이란다.

엄마가 학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좋은지 둘
째 지영인 작은 눈에 웃음을 달고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
지영이가 제 짝을 소개했다.

지영이의 짝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제릭 이다. 지영이의 말
로는 제릭은 집이 호주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한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인 지영에게 그 모든 것이
부럽고 신기한가보다.

얼마 전엔 자기는 꼭 부자랑 결혼해서 엄마가 아는 선생님
같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탤런트랑 결혼할 거라
는 거창한 미래의 꿈을 이야기 하는 바람에 남편과 나를 어
이없게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저택에 살고 싶다는, 아이의 꿈치고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지영이의 꿈이 이루어져서 남편과 내가
덕을 볼 날이 오려나?

반면에 승희는? 연예인에 미쳐서 정신이 없다. 늘 2NE1,
2PM, 샤이니의 노래를 듣고 사는 승희에게 그만 좀 라고 해
도 이미 소용이 없다. 사춘기의 몰입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다.

“엄마 필리핀에서 산다라 박이 유명해?”

학교에서 돌아온 승희가 흥분해서 묻는다.

“아마도 그럴 걸. 인간극장에도 나왔잖아. 필리핀 무슨 콘
테스트에서 선발 됐다고 그랬는데. 왜?”

“필리핀 선생님이 다라를 아냐고 하드라고. 필리핀에선 산
다라를 그렇게 부르나봐”

“그래서?”

“자기도 좋아한데. 다른 선생님은 슈퍼주니어의 강인을 좋
아하고.”

강인이 필리핀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이곳 선생님들 중에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다. 우선 승희의
영어 과외 선생님 미스 에마도 동방신기를 좋아한단다.

“그래? 한류가 여기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2PM의 재범이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아, 우
린 재범이를 용서해줘야 한다고!”

또
시 작
이다. 얼마

전 2PM의 리더

재범이 한국인을 비하하

는 욕설 파문으로 탈퇴하고 미국으로

가버린 사건을 접한 승희가 요즘 계속하는 말이다.

딸애는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 줘야한다. 어릴 때 한 거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10대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 단 한 건의 일로 그렇게 내친다(?)다는 건 딸의 말처럼 불합리 한 것일 수도 있다.

한 치의 이해도 없이 교포에게 무조건 조국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가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미친 듯이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애뜻함은 가지고 있더라도.

어쩌면 지금 막 뾰 날개를 확 꺾어버리는 건 아마도 잔인 한 것인지도 모른다. 화려한 연예계의 생활, 꿈같은 인기를 실감 한 그가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지 조금 걱정이 된다.

미국에 있는 교민들도 어쩌면 두려움을 느낄지 모른다. 본 토 한국인들 앞에서는 조국에 관해서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할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그들은 그 모든 것 에도 불구하고, 재범과 자신들을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몰에 갔는데, 한국인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오 고 있었다. 소녀시대, 동방 신기의 노래였다 순간 너무 반가워 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악세사리 가게로 들어갔다. 점원들이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흥얼거렸다.

더구나 악세사리 중에서 택이 붙여 있는 곳에는 특별히 서

툰 글씨로<한국제품><진짜 한국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초 등학교 앞에서 팔던 야광스티커나, 펜슬들이 이곳에선 고급 악세사리 점에서 팔리고 있었다. 이것도 미약하나마 인도네 시아 속의 한류라고 해야 하나?

승희는 요즘 자신이 좋아하는 산다라 박을 필리핀 선생님 들도 알고,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좋은가 보다. 하긴 뚝순이(하도 말이 없고, 잠잠아서 붙인 별명)지영이도 은근히 언니를 따라서 연예인의 맛을 알아가고, 소녀 시대의 지지지 춤을 혼자서 연습을 한다.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시절 이 그러한 것이다.

한술더 떠서 승희는 막내를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다 10살 이 되면 SM에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종종 사탕과 과 자를 쥐가면서 이제 만 다섯 살 반인 막내를 세뇌시킨다. 그 렇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음식이나 막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치사한 방법을 쓰는데 이거 뭐 원숭이 훈련도 아니고 참.....어찌됐든 세뇌덕분인지 물어보면 입에서 반사적으로 ‘가수가 될 거야와 ‘SM에 들어 갈 거야가 자동으로 나온다.

현재 승희의 꿈은 막내를 연예인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그 럼 앞으로의 네 꿈은 뭐냐고 했더니, 스타일에 나오는 박기자 씨처럼 에디터가 되는 거란다. 요즘은 그래선지 <악마는 프 라다를 입는다> 1권과 2권을 읽고 있다.

승희의 롤모델은 아무래도 캔디과는 아닌 것 같다. <선덕 여왕>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미실의 역할이 멋있다고 그러 고, <스타일>에서는 편집장 박기자 씨가 멋있단다. 롤모델이 그러하니 성격도 앞으로 어찌될지는 짐작이 간다. 보통 여자 애들은 사춘기의 롤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법이니.

나는 딸아이의 꿈을 존중한다. 무엇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 하고 달려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꿈을 꾸 지 않는 침대는 날개는 있으나 나는 법을 잊어서 날지 못하는 닭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도 자카르타의 어느 선물가게 혹은 옷가게에서는 소 녀시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동방 신기의 노래가 흘러나온 다. 내가 십대였을 때 거리마다 장 국영과 유덕화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X-JAPAN의 노래가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처럼 말이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인도네시아 인들에게도 그리 할지도 모른다.

자연과 나를 만나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폭포가 있는 산책로



글: 안미경

시간에 늦을까 봐 몇 번이고 뒤척였던 것 같다. 남편보다 먼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준비를 했다. 나이 들면 곰국 끓여놓고 부인들만 여행 간다더니 벌써 그 나인가 싶어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그 틈에 어느 샌가 잠이 깬 남편이 잘 다녀오라며 배웅해줬다. (자주 이래도 좋아할까?) 난 그렇게 남편의 사랑스런(?) 배웅을 받으며 회원이 된 후 처음으로 문화탐방 반에 합류하게 되었다. 내 친구 전민규와 함께!!…….

아침 6시 코리아센터. 정말 빨리들 도착하셨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들이 반가웠다. 내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은 많지만 누구를 만난 걸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사람과의 만남과 인연은 대부분 내게 좋은 일 이었고 이 만남 역시 나를 새롭게 키워 주리라 믿는다. 특히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한 만남은 이미 마음을 연 만남이 아닌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시작하는 여행이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처럼 숨통이 트였다.

찌보다스 국립공원은 여러 번 와보았고 폭포까지는 중간쯤 올라가다 되돌아 온 적도 있었다.

오늘은 여럿이 함께여서 더 의미가 있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가쁜 숨을 애써 고르며 올라갔다. 등산로는 깨끗했고 온통 녹색물결이었다. 숲의 공기는 맑았다. 등산로의 양 옆은 울창한 숲과 고도에 따른 식물 분포도에 대한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은 우리를 즐겁게 했다. 숲에는 봄의 어린 초록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여름을 생각하게 하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도 있었다. 화사하면서도 애잔한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나라 들국화 같은 작은 꽃. 황금빛 꽃술을 자랑하며 당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왕관 같은 꽃들, 나뭇가지 새로 내리쬐는 햇살에 선홍색으로 빛나는 이름모를 꽃들의 자태가 새소리, 가끔씩 만나는 아기 두더지, 다람쥐, 원숭이로 인해 신비해 보였다. 숲속에는 남모르는 녹색의 전설이 있을 것만 같았다. 높이 올라갈수록 점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점 하늘이 더 푸르러지며 짙어가는 가을 색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등산로에서 만난 끄르둥(Kerudung)을 쓴 대학생은 이 등산로를 ‘어머니 같은 숲’이라고 했다. 고독하면서도 힘차 보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정이 맺혀 있는 녹색의 숲. 때로 삶의 창이 되어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 숨 쉬기 때문이라.

해발 1500m 쯤에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흔들리며 흘러가는 하늘을 본다. 바람 따라 온 고단한 나무들이 잠겨 있고 지나던 흰 구름, 부서지는 햇빛들도 수면에 잔잔한 바람 무늬로 흔들리며 흘러간다. 해발 2000m 쯤 나무다리가 나오는데 이곳은 큰 분화구였다고 한다. 등산로 2400m 쯤에는 마치 야자수처럼 보이는 키 큰 고사리 나무도 보인다. 해발 2800m 쯤에 세 개의 폭포가 약간의 사이를 두고 나란히 서있다. 잘생긴 암벽과 절묘하게 포개진 초록과 아늑하게 들어앉은 세 번째 폭포 Cibeureum 은 너무도 완벽한 구도다.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이다.

멋들어진 한 폭의 동양화이다.

인간은 스스로 외로움을 만드는데 이곳에는 하늘이 나무와 폭포는 함께 사는 법을 안다. 왼쪽 첫 번째 큰 폭포 Cikundul 아래에 있는 도를 뒀다가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는 사람 형상의 바위는 섬뜩하기보다 그저 고매한 정신으로 쉼 사이 없이 떨어지는 폭포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 성스러운 남자는 오늘도 외친다. ‘깨어나라, 기도하라, 이 세상 끝나는 날 나 다시 살아나리리고....’ 세 번째 폭포 Cibeureum 앞에 있는 족장들이 회의를 했음직한 곳에서 Cikundul, Cidendeng 폭포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Cibeureum 폭포를

바라보며 각자 준비해온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처음 올라올 때는 땀이 났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 추워졌다. 소름이 돋을 만큼. 우리는 웅골차게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었다. 폭포가 되어 떨어져 흐르는 작은 시내는 강원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실개천처럼 물이 차고 맑았다. 따듯한 커피한잔을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점점 더 추워져 어느 샌가 모두들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을 하며 나는 자꾸만 뒤돌아 보았다.



질푸르던 시절의 그리움을 추억을 되새기며 나는 자꾸만 뒤돌아 보았다.

나를 두고 떠나보내며 뒤돌아 보던 그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내려가는 길에는 올라오는 길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람. 바람 속에 있는 자연의 몸짓들, 바람 속에 흔들리는 나뭇잎, 적당히 흐린 하늘, 자카르타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름과 나무가 서로 부르는 모습, 안개 속에서 함부로 썰 수 없는 너와 나의 거리, 솟아오르는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 하산 후 찌보다스 식물원 잔디밭에서 서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었던 시간들. 풀밭에 누워 가슴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쳐다본다. 누군가 시를 읽는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박희준 시)

하늘 냄새의 휴식.

돌아 오는 길. 엔틱한 멋진 카페, PONDOK DAUN에서 우리는 작은 철학자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유 공장 직매장에서 갓 만든 어넌 요구르트까지 시식했다. 추억과 자기 성찰, 미래에 대한 다짐, 자신을 되돌아보는 상념으로 현재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하루가 아쉬웠다. 그러나 집에는 또 가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겠지. 오늘 탐방에서 얻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여유를 일상에서도 즐겨보시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 문화탐방 때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외로움을 형벌로 느끼는 동물이며

스스로 외로움을 만드는 우리들의 생애는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

무성한 숲속의 산책길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하늘이나 바람, 폭포와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지는지를

함께 사는 법을

제 빛깔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잔잔한 바람 무늬가 그리워 질 때

다시 돌아가야지. 흔들리는 가슴의 노래를 들으러

풀들이 기다리고 나무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를 두고 떠나며 뒤돌아 보던 그가 있는 그곳으로.....

흔들리는 숲과 바람과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소리가 그리워질 때

‘질주하는 전율과 질주 끝에 단말마를 꿈꾸며 (이형기, 폭포)’

역동적인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외치는 폭포가 쏟아 오르는 그곳으로



170회 인니문화연구회탐방

한인회에서 출발

일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5시

장소:

뽕작 차밭 산책/보고르 궁전/보고르 식물원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바하사

드라마에서 퍼올린

글 : 허영순 번역 작가 (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 제공 : KORINDO/KBS WORLD INDONESIA



심성 고운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 주고,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친구. 그래서 인지 그 친구를 만나거나 함께 일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찡하니 행복 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 점심 식사 후 차 한잔 하고자 친구를 찾아 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친구를 보면서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상주 한지 4년... 저의 공동체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손님이라 생각 했는데. 이젠 내 삶의 일부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한국에 잠깐 들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몰고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참고 견디며 가고 있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못하는 자신이 밉다고 합니다. 때론 바쁜 친구를 위해 무작정 기다려 주고 싶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데 일을 한 후로는 그럴 수 없어 슬프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하는 대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었듯이 나누어야 하는 대상을 바꾸자.

는걸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누면 더 커진다.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스스로를 열고 퍼주면 그것이 커진다.

한인 뉴스가 글을 쓰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인 사회가 서로를 위해 개방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첫 만남 부터 심상치 않았던 나운과 진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핸드폰에 서로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진우 핸드폰에 저장된 나운의 이름은 “Gadis tangguh “강심장”

첫 만남 부터 대차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기죽지 않는 나운의 성격을 잘 나타낸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Gadis tangguh'

여성을 호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Ibu, Nyonya, Nona.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Wanita, Perempuan, Gadis(Perawan tua), Cewek**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을 존칭 할 때 혹은 엄마를 부를 때 **Ibu** 또는 **Nyonya**. 미혼 여성을 호칭 할 때 **Nona** 를 사용 합니다.

Wanita, Perempuan 두 단어 모두 여자를 지칭 하지만 일반적으로 **Wanita**는 여성 무리를 지칭 할 때 **Perempuan**은 성별을 나타낼 때 또는 한 개인을 지칭 할 때 사용 됩니다.

예)

Ini kamar mandi untuk wanita .
여탕 입니다.

Bayiku bayi perempuan.

제 아이는 여아 입니다.

Gadis는 미혼 여성을 지칭 할 때 사용 되며, 청소년기의 여자나 미혼의 나이 어린 여성을 지칭 할 때 사용 됩니다.

참고)

- 1)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여성(노처녀)을 지칭 할 때 **Perawan tua** 또는 **Wanita tua**를 사용하며 **Gadis Tua**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2) **Cewek**은 자카르타 방언으로 공식석상이나 문어로는 사용되지 않는 일명 **Bahasa Gaul**입니다.
- 3) 미혼의 숫 처녀 지칭 할 때 **Gadis dara**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나운의 천방 지축 성격을 잘 나타내는 **Tangguh : Tak mudah kalah.**(쉽게 지지 않는)뜻을 가진 단어로 강인함을 나타내는 **Kuat, Kokoh, Tekun**,과 같이 강함을 나타내지만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사용 됩니다.

예)

Kuat은 힘이 썸과 어떠한 상황에 잘 견디는 상태를 뜻 합니다.

Dia **kuat** membawa barang sebanyak itu.
많은 물건을 가져올 만큼 힘이 세다.

Dia **kuat** dalam menghadapi penderitaannya.
그는 힘든 역경을 잘 이겨 낸다.

건물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건이 튼튼함을 뜻 합니다.

Bangunan Wisma ini sangat **kokoh**.
이 건물은 견고하다(튼튼하다)

무언가를 이루기 고집스럽고 강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바를 뜻 합니다.

Dia bekerja dengan **ulet** demi mencapai cita-citanya.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4

이번 호에서는 단체협약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안 중 급여, 수당 및 복리후생 관련 법적 규정 및 관리방안, 단체협상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급여 관련 규정 및 내용:

1. 급여 구성 항목(장관령 7-'90)

1) 기본급:

업무의 성격 및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보상금이며 상호 합의에 의거 결정됨.

2) 고정수당:

근태 또는 출결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

예) 직책수당, 직위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물가수당, 지역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3) 비고정수당:

근태 또는 출결 사항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됨

예) 교통수당, 만근수당, 식대 등

2. 비급여 소득

1) 복지시설:

예) 차량, 식사제공, 예배장, 탁아소, 협동조합, 매점 등

2) 보너스:

급여로 보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 또는 근로자의 업무성과(목표 초과하는 생산성, 품질달성 등) 달성시 지급되며 금액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됨

3) 기타: 종교명절 수당, 팁

※ 종교명절 수당 지급 기준:

- 근속 3개월 미만: 不 지급

- 근속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12*급여

- 근속 1년 이상: 1개월 급여

3. 급여 보장(법령 8호-'81)

1) 급여 지급 원칙

- 사원에게 직접 지급, 미성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보호자의 이견 없을시 유효

- 제3자를 통한 지급 시는 위임장을 통해서만 가능(위임장은 1회한 유효)

- 급여중 일부(25% 이내)는 현물로 지급 가능(단, 약품, 술은 불가)

- 급여지급 주기: 최소 1주일, 최대 1개월 간격

- 급여지급 지연시:

4일째 부터 5% 추가 지급, 8일 이후부터는 1%추가 지급, 1개월간 추가지급은 50%를 넘지 못함, 1개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보장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월 이후에도 지급 불가시 이자 추가 지급.(회사 대출 은행 금리 기준)

2) 급여 공제

-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벌금 부과는 취업규칙, 단협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기되어야만 가능.
- 벌금 부과시 해당사원에 대한 손해보상 요청은 불가함.
- 급여공제는 사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만 가능(단, 정부 의무 사항은 예외: 세금, Jamsostek 등)
- 근로자의 실수, 태만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시 근로계약서,사규, 단협에 근거 급여공제 가능 (단, 50%를 초과하지 못함)
- 근로자 퇴직시는 부채와 전체 급여 상쇄 가능
- 제3자에 의한 급여 차압시 최대 20% 한도 내 급여 공제 가능
- 회사 부도시 근로자 급여는 최우선 지급 대상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갖음.

4. 연장 근로(장관령 72-'84, 장관령 102-'04, '03 근로기준법 94조)

1) 연장 급여 계산 항목

* 기본급 및 고정 수당(직위수당, 직책수당, 물품수당, 교통수당 등)

2) 연장 급여 계산 비율

상기 연장급여 계산 항목의 합은 통상 급여의 75%이상이어야 한다.

* 하단 도표 참조

3) 연장 근로 시간 규정

① 주6일 근무시:

② 주5일 근무시:

주5일 근무시 평일 연장근로 계산은 주6일 근무와 동일하며 휴일/주휴일 연장 근로의 경우 1~8째 시간은 시급의 2배, 9째 시간은 3배, 10째 시간 이후는 4배로 계산된다.

4) 연장급여 지급 기준:

① 월급 근로자: 1/173*월급

② 일급 근로자: 3/20*일급

③ 도급 근로자: 1/7*일급

II. 관리 방안:

1. 인상/조정 시스템:

각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기본급은 매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1회 조정되며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이 발생하는 시점인 매2년 마다 한번씩 조정을 한다. 다만, 급격한 유가 인상과 같은 특수한 외부 상황 발생시 노조 또는 사원들로 부터 교통수당 인상이나 기타 유가와 연관된 다른 수당에 대한 인상 요구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차기 단체협상이나 임금인상 시점으로 연기하여 시스템적으로 인상/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장 급여 계산 비율

요일	평일		휴일/주휴일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시간	연장 첫째	연장 둘째 이후	1~7	8째	9째 이후	1~5	6째	7째 이후
연장급여	1.5X시급	2X시급	2X시급	3X시급	4X시급	2X시급	3X시급	4X시급

2. 기본급/각종 수당:

학력별,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지역별, 시장 임금을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보통 Gross를 기준하여 총액임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회사간의 기본급 또는 각 수당별 부분 임금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전 어떤 사원이 물기를 “다른 회사는 교통수당을 많이 주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것 밖에 주지 않느냐?” 라고 물기에 “그럼 그 사원은 회사로부터 월 총 얼마를 받아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자칫 상기와 같은 잘못된 비교 또는 선입관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또는 실제로 경쟁회사 대비 부실한 대우를 해줌으로 인해 회사의 중요 인재들이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항상 주변 회사의 총액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여 회사 임금 결정시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다른 회사로 이탈한다거나 또는 상기와 같은 직원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음으로써 잘못된 선입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조금:

경조금은 사원의 경조사 발생시 해당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결혼, 사망, 출산, 자녀 입학 등이 있다. 노동법에서는 경조금 관련하여 특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관련 경조사의 발생빈도, 회사의 지불능력, 주변의 일반적 상황 등을 살펴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경조금 역시 단체협상시 마다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인상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인데 경조사의 특성상 정기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상시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비용부담 없이 사원의 심리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টে이라 생각된다.

4. 의료보험:

보험은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Jamsostek Paket A (사망, 산재, 연금) 및 의료보험 Paket B(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Paket A는 의무사항이므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업종별로 상이함)을 Jamsostek에 납부하면 된다. 단, 의료보험의 경우는 Jamsostek 제도의 서비스 부실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항상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비교해봐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Reimburse(환불) 제도, 사설 의료보험 가입 등이 있는데 환불제도의 경우는 한도 금액 설정 및 가짜 영수증 제출로 인한 부작용이 있고 사설 의료보험의 경우는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써는 Jamsostek Paket B에 예상되는 총 비용을 확인하고 그에 상당한 재원 한도 내에서 사설 의료보험 업체를 찾고 프로그램 설계한다면 동일한 투자로 효과(직원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정부에 줄대는 ‘관시 네트워크’ 가 비즈니스 키워드 ”

기사제공 : 최양기 편집위원

④ 係의 세계



2007년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에 참석한 선원롱 사강그룹 회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신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정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앞과 뒤, 아래와 위로 열려 있는 무궁한 관시(關係)망을 활용해 성공을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하다. 관시에 관시가 줄을 잇는, 혈연과 지연의 네트워크가 현란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도 잘 아는 이 관시의 개념에서도 최상의 것이 있으니 바로 ‘관시(官係)’다.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과 정부 관리에게 줄을 대는 행위다. 이야말로 중국 비즈니스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요체다.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대만과 홍콩의 잘나가는 비

즈니스맨들 사무실에는 으레 커다란 사진이 등장한다.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은 물론이고 전임 대만총통인 리덩후이(李登輝) 사진도 줄줄이 걸린다. 잘나가는 지도자와 ‘통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과 악수하거나 면담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이다.

◇최대 민영 제철기업 사강그룹

상하이 푸둥(浦東)공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시 사강(沙鋼)그룹의 제철공장. 공장과 인접한 창장(長江) 하구 7km에 걸친 전용 항구 10개의 1만t급 부두에는 화물선 여러 척이 분주히 완제품을 선적하고 있었다. 사강은 포스코의 중국 내 최대 스테인리스 공장인 장자강푸샹부슈강(張家港浦項不銹鋼)의 합작파트너로, 생산량의 29%를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다.

이 회사 선원롱(沈文榮·63)회장을 만난 곳은 본사 9층 회의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벽면에 걸린 선 회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악수 사진이 눈에 들어 온다. 그는 “지난해 10월 당 대회때 찍은 사진”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선 회장이 건넨 명함에는 회장 말고도 이사회 주석, 사강그룹 당위원회(黨委)서기 등의 직함이 박혀 있다. 그의 친(親)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 그는 공산당 내 서열이 회사가 있는 장자강시의 당서기보다도 높다.

중국·중국인을 본다 - 하

중국 10대 공산당원 억만장자

이름(나이)	직업	재산(억 위안)
루즈창(56)	판하이그룹 회장	279.8
루관추(62)	완상그룹 회장	131.3
허상젠(65)	메이디그룹 회장	131.2
선원룽(63)	사강그룹 회장	90
천텐차오(34)	성다왕뤼 회장	86.3
런위안린(53)	양쯔장선창 회장	80.3
쑹칭허우(63)	와하하그룹 회장	75
주위궈(55)	첸싱즈예 회장	57.1
양쥬수(54)	쥬다그룹 회장	45
상원보(45)	싼이 중공업 총재	28
가오지판(41)	텐허광닝 회장	20
런진성(46)	센샤야오예 회장	19.1

출처: 포브스 중문판, 저장신문 인터넷판

“중국의 가장 큰 정치는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정치가와 기업인 모두의 본분이다.” 관시(官係) 구축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선 회장의 완곡한 답이다. 정치와 경제는 함께 간다는 얘기다.

선 회장은 이 같은 중국 정부와의 밀접한 네트워킹을 토대로 사장을 중국 4위 철강기업(민영 철강기업으로선 최대)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당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은 사장은 지난해 철강 생산 2000만t, 판매수입은 1000억 위안(약 14조원)을 기록했다.

◇와하하 간부 80%가 공산당원

다음 날 찾아간 저장성 항저우(杭州)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식음료 기업인 와하하(娃哈哈) 생산 기지의 본관 2층 그룹 전시실. 이곳은 마치 공산당 전시실과 같았다. 그룹 총수 쑹칭허우(宗慶後·63)와 공산당의 돈독한 관계는 벽면을 가득 메운 고위 지도자들의 공장 시찰 사진이 대변하고 있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사진을 필두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국가부주석의 사진도 걸려

있다. 산치닝(單啓寧) 와하하 대외연락사무실 부주임은 “쑹칭허우 회장은 2003년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원 격, 당시 기업인 대표 55명 참석)로 선출됐고, 올해도 11기 대표로 선출돼 베이징 전인대에 참석했다”며 “기업가에 머물지 않고 인민의 대표로서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사람과 사진 찍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당·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맥을 동원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중국의 각 기업에는 그래서 고급 공산당원들을 자기 회사로 유치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영업수입 182억 위안(약 2조5480억원)을 기록한 와하하는 1993년 당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500여 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간 간부급은 80% 이상이 당원이다. 와하하 당위 서기를 맡고 있는 서젠잉(社建英)이 2000년 항저우 우수 당무공작자상을 받을 정도로 회사는 공산당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90년대 중반 안후이성에서 와하하 제품을 먹은 어린이가 세 명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쑹칭허우는 관시망을 가동, 공산당 선전부를 통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공안의 도움으로 독극물을 주입하고 돈을 요구한 범인을 잡았다. 쑹칭허우의 관시(官係)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한 경우다.

“중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국가 문제 해결에 힘이 되어야 한다.” 쑹칭허우의 지론이다. 정부의 수요를 파악해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야 한다는 게 쑹 대표의 기본 방침이다.

◇ “당원이 일 더 잘해”

다롄푸진강반(大連浦金鋼板)의 최계수(崔桂洙) 총경리는 “유능한 중국 직원을 공산당에 입당시키는

게 정부와 우호적 네트워킹 구축의 기본”이라며 “당원이 된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책임감도 있고, 또 모범적으로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호호도 중요하다. ‘서진북상(西進北上: 서북지역으로 발전), 농업문제 해결, 짜우추취(走出去: 해외 진출)’는 와하하의 향후 3대 발전전략이다. 이는 서부대개발과 농촌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현재 중국 정부가 내건 정책에 기업의 발전방향을 일치시킨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힘 있는 정부와 유착하려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비즈니스 전쟁에서의 큰 승패는 대부분 관(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렸기 때문이다.

◇진시황 아버지도 관시 기반으로 사업

중국에선 진시황의 아버지로 알려진 여불위(呂不韋)가 유력 제후들과의 관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친 관상(官商)의 원조로 통한다. 명(明)대 강남의 휘상(徽商)과 함께 중국 양대 상인집단을 이뤘던 진상(晉商) 역시 나라의 북방정책을 적극 도와주고 성장의 기반을 쌓았다. 변경의 군사 요충지에 군량을 납

품하고 그 대가로 소금 판매권을 받는 ‘개중법(開中法)’을 활용한 것이다.

‘권도(權道: 권력의 도)와 상도(商道)는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졌던 청(淸)말의 거상 호설암(胡雪岩•1823~85)도 관상의 거두다. 그는 대신이자 군벌이었던 좌종당(左宗棠)의 군량 운반을 도와 태평천국군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후 그는 고위 관리가 쓰는 붉은 모자를 쓰고 다녀 ‘홍정상인(紅頂商人)’이란 칭호를 얻었다. 선원 룡•쑹칭허우는 중국 특유의 관상(官商) 유전자를 이어받은 대표적인 기업가 후예다.

◇관시(關係)와 관시(官係)

관시(關係)는 중국 특유의 끈끈한 인간 관계를 지칭하는 말. 중국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철저한 혈연•지연•학연의 인맥 네트워크 사회다. ‘메이관시 유관시, 유관시 메이관시(沒關係 有關係, 有關係 沒關係)’라는 “인맥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맥이 취약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관시 중 정부와의 유대를 지칭하는 ‘관시(官係)’는 기업 활동 부침의 관건이다.

” **성실함만으로는 글로벌 경쟁 안 돼 ...**
창의성 더해야 일류

⑤ 創의 세계

태양 전지회사 우시상더 6000명 중 200명이 연구직
민영기업 첫 뉴욕증시 상장

‘봉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 머리가 되겠다(寧爲鷄頭, 不爲鳳尾)’. 중국인들의 창업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어다. 그들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든다. 후베이(湖北)성 우한의 한양(漢陽)강철에서 일하고 있는 한 근로자의 모습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일에까지 태양전지 기술을 수출하는 우시상더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는 스 회장의 이런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창춘(長春)이공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국과학원 상하이(上海)광학정밀기계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린다’는 건 한국 음식의 미덕이다. 풍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풍부한 것까지는 마다하지 않지만 뭔가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 일단 남이 맛볼 수 없는 재료에 요리 방법이 특별해야 한다. 이 정도 돼야 “참 잘 먹었다”는 칭찬이 나온다.

예를 들어 돼지 힘줄 먹는 법을 보자. 죽은 돼지 힘줄은 특색이 없다. 이런저런 궁리 끝에 산 돼지 힘줄로 만든 요리인 ‘홍사오티진얼(紅燒蹄筋兒)’이 별미로 포장돼 상에 오른다. 죽은 돼지 것에 비해 값이 엄청 비싸다. 진귀한 재료로는 모기 눈알, 코끼리 코, 원숭이 뇌수, 히말라야 고산에 사는 설표(雪豹)의 3개월짜리 새끼 등 셀 수 없이 많다. 요리부터 특이함을 즐기는 취향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인들은 겉보기와 달리 사고와 감성은 ‘늘 새롭고 독특한 것을 추구(標新立異)’하는 것이다.

기업의 정신 세계도 이와 다를 게 없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초일류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의 불문율이다. 요즘 잘나가는 중국 기업 우시상더(無錫尚德)의 스정룡(施正榮·45)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열심히 하면 돈은 좀 벌겠지만 영원히 2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러면서 그는 ‘창조와 혁신’의 정신을 내세운다.

장쑤(江蘇)성 우시에서 기업을 일으켜 한국과 독

받은 뒤 호주 유학 길에 오른다. 1988년이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에서 세계적인 태양전지 권위자인 마틴 그린 박사를 만났다. 그 밑에서 태양전지 기술 개발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호주 태양전력회사의 이사로 일했다.

스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덕분에 엄청난 연봉을 받았고 생활도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풍족했지만 2000년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귀국길에 올랐다.” 호주에 눌러 앉았다면 그는 평범하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중국 중앙방송국(CCTV)으로부터 춘추전국 시대에 정치적 성공을 뒤로 하고 강호에 나가 사업을 벌여 성공한 중국 최초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상업의 신(神)으로 일컬어지는 범려(范蠡<8821>)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남보다 한발 앞서자(快人一步)’란 구호를 입에 달고 다녔다. 남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그는 한발 앞서 중국에 태양전지를 보급하겠다고 덤벼들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모지와 같은 태양전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발이 닳도록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납득시켰다. 운도 따랐다.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 때문에 무공해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면서 태양전지가 빠른 속도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창업 5년 만인 2005년 12월 우시상더는 미국 뉴욕증

시 상장에 도전해 보란 듯이 성공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첫 민영기업이란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우시상더는 29% 성장했다. 매출액도 100억 위안(약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저력은 우수 인력 육성에 대한 스 회장의 대대적 투자가 뒷받침됐다. 6000명의 직원 중 연구개발(R&D) 전담 인력만 200명이다. R&D에 매출의 5%를 꾸준히 쏟아 붓고 있다. “세계 최강의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스 회장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덕분에 우시상더는 글로벌 경쟁자들을 제치고 3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은 스 회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제2, 제3의 스정룽과 우시상더를 꿈꾸는 기업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을 줄 모르는 창업 열기다. ‘천하에 못 하는 비즈니스가 없다(天下沒有無作的生意)’는 자세로 벌떼처럼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대학 캠퍼스에는 “창업이 운명을 바꾼다(創業改變命運)”는 말이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유행 중이다. 벤처캐피털(위험 투자 자본)을 뜻하는 VC란 낯선 단어가 신문에 설명도 없이 매일 등장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해에도 수천 개의 기업이 탄생했다 사라지곤 한다.

CCTV의 경제전문 채널에서 창업을 소재로 한 ‘중국에서 성공하자’ 프로그램이 인기다. 매회 겁 없는 초보 창업가들이 출연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전문 패널의 혹독한 비평을 듣는다. 최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유학생 양판(楊帆·20여)은 “세균 감염 위험이 없는 생명공학 재료로 1700여 종의 생활용품을 만들 기술이 있으니 투

자해 달라”고 말해 반향을 일으켰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해 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창업 도전자에게 방청객이 느닷없이 “당신은 길거리에서 가짜 DVD를 사본 적이 있느냐”고 돌발 질문을 던질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패널을 맡고 있는 알리바바닷컴 마윈(馬云) 회장은 “모방하면 실패한다”면서 도전자들에게 창조적 마인드를 주문했다. 마 회장은 변변치 않은 월급만을 받던 대학 영어강사직을 차 버리고 인터넷 기업을 창업해 지금

은 세계적 인터넷 상거래 업체를 일궈냈다. 알리바바닷컴을 만들면서 “미친 놈”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던 마 회장은 “독창적 사고에서 창업한 뒤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사회자는 “우리 조상들이 세계 3대 발명품인 화약·나침반·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후손인 우리가 무엇인들 못 하겠느냐”고 장단을 맞췄다.

이처럼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충만해지면서 새로

운 도전에 나서는 기존 기업도 나온다. 79년 단돈 1000위안으로 노점상을 시작해 메추리 사육 사업으로 큰돈을 번 신시왕(新喜望)그룹의 류용하오(劉永好) 회장. 그는 이제 중국 최대의 농식품 기업을 넘어 다국적 곡물 메이저 카길을 모델로 세계적 기업이 되겠다고 버르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겁 없이 덤비는 기업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커져이 쌓이면서 중국이 개최하는 세계적인 보아오(博鰲)포럼의 룽용투(龍永圖) 이사장은 마침내 최근의 한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이미 혁신시대로 진입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Indonesian Heritage Society / Korean Section

(스나안 소고 옆 Sentral Senayan 1 건물 17층), Tel: 021-572- 5870

10월 26일(월) 코리안 섹션 정기 총회 안내

시간: 오전 10시

장소: 뽀독인다 골프힐 아파트 클럽 하우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회원 가입 안내

9월에 신규 회원을 갱신하는 제도로 되어있는 헤리티지는 1년 내내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또는 토요일 문화탐방, 오지 여행, 저녁 강좌 등 많은 활동들을 900여명이 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021) 572- 5870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 사이어티 홈페이지 www.heritagejkt.org

General Meeting

코리안 섹션 정기 총회가 비두리 아파트(Beverly Tower, Jl Simatupang Ciladak) 로비의 Fuction room에서 10월 26일(월) 10시에 개최됩니다. 정기 총회에는 회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서로 간의 활동을 교류하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 날 정기 총회가 끝난 후 Pot Luck Lunch가 이어지므로 각자 손수 한 접시씩 마련해온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각자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Open Lecture

10월 31일 10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열대 과일”이라는 제목으로 헤리티지 코리안 섹션 스쿨 프로그램의 회원 중의 한 분인 이정희씨가 신기한 열대 과일의 효능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Museum Tour

국립 박물관의 정기 한국어 관람안내가 매월 첫째 주 화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에 현관 로비에서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립 박물관 관람 안내 자원봉사자 정기 모임이 10월 5일 10시 30분에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은 인도네시아 역사에 관해 주제 발표가 있

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기 모임 시에는 안내 봉사자들의 박물관 학습이 항상 병행될 예정입니다.

School Program

지난 9월 11일 한국 학교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대과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지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은 많은 호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는 10월 23일(금) 12시 30분에는 헤리티지 회원 중에서 영국인 마이클 니콜슨(Micheal Nicholson)이 JKKS 고등학교 11학년 사회문화수업을 듣는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Tropical fruits of Indonesia”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스쿨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맡으신 이미지씨와 마이클 니콜슨은 모두 자원 봉사자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10월 8일(목)과 22일(목)에 출사 모임이 있습니다. 8일 출사 장소는 안줄이며 오후 4시경에 모여 바닷가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뽀작 찌보다스 공원과 폭포로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공동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이종숙 0812 838 1294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 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지표/경제동향

● 무디스, 인니 경제평가 Ba2로 상향 조정

3개월 전 인니 경제전망을 긍정적(=상향예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인니 경제평가를 Ba3에서 Ba2로 1단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인니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절한 거시지표 관리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Citigroup은 일반적으로 무디스의 경제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후 12개월 정도 후에 실제 경제평가

가 조정되는데 금번의 경우 3개월 만에 상향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는 무디스가 인니 경제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P는 2006.7월 이후 인니 경제평가를 BB-로 책정하고 있으나 무디스의 상향 조정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인니 경제평가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니 재무부, 3/4분기 경제성장률 3~4% 예상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3/4분기 경제가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3~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동 장관은 3/4분기에는 르바란 연휴로 인한 국민의 소비가 진작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 장관은 3/4분기에도 인니의 수출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니 국가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BAPPENAS, 인프라 건설 위한 land capping 활용 확대 시사

Syrial Loetan BAPPENAS 장관보좌관은 향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시 land capping(용지비 상한 초과분에 대한 정부보상)모델이 확대되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land capping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시에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른 인프라 건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인프라 분야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건설시 활용되고 있는 land capping의 경우 건설후보지의 지가가 토지수용 도중 상승했을 때 정부

는 기존 지가의 110% 이상 상승한 초과분에 대해 보조한다.

동 보좌관은 발전소등 인프라 건설시에 land capping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외의 인프라 건설도 검토 후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DB(아시아 개발은행), 2009 인니 경제성장 4.3% 달성 예상

인니 정부, 세계은행(WB), IMF가 2009년 인니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상한 후, ADB(아시아 개발은행)도 2009년 인니 경제성장률이 4.3%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ADB는 최근 발표한 Asian Development Outlook(ADO) 2009에서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적절한 정책수행 및 비교적 개선된 금융시스템, 수출의존도가 낮은 거대 경제국들의 경제 회복에 힘입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 및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기존전망치 (09.3월)	수정전망치 (09.9월)
아시아	3.4% (6%)	3.9% (6.4%)
동아시아	3.6%	4.4%
(중국)	8.2% (7%)	8.9% (8%)
남아시아	4.8%	5.6%
(인도)	5.0%	6.0%
동남아시아	0.7%	0.1%
(인도네시아)	3.6%	4.3%

* ()는 2010년도 경제성장 예상

ADB는 인니와 베트남 경제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포함되어있는 말련과

태국의 경제가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전망은 낮게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 Pro Demokrasi, 센츨리 은행 스캔들 관련 Sri Mulyani 재무부장관 조사 촉구

NGO 단체인 Pro Demokrasi는 국고 총 6.7조 루피아가 투입된 센츨리 은행 구제결정과 관련해 재무부장관이자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Sri Mulyani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구제 여부를 결정한 만큼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금융조사원(BPK)이 센츨리 은행 스캔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KPK)가 Sri Mulyani 장관,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부디오노 부통령 당선자, Rovert Tantular 센츨리 은행 소유자, Rafat Ali Rizvi, Hesyam Al Wanraaq 등의 대주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국회, 우편법 개정제 합의

국회 제1위원회의 Theo Sambuaga 위원장은 인니 우정국의 독점적 우편 배달지위를 제한하는 우편법 개정안에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편법은 민간 배송업체들이 편지를 포함한 2kg 이하의 소화물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신우편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들이 무제한에 제한 없이 우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Mohammad Nuh 인니 정통부장관은 향후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회사와 합작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제한적이지만 우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외국 투자기업들은 국제항구나 국제

공항이 위치한 주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니 우정업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간 7조~8조 루피아 규모이다.

● 인니 공정거래위원회(KPPU),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폐지 권고

인니 공정거래위원회(KPPU)는 인니 항공사들이 항공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Ahmad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국장은 유류할증료가 항공사간의 담합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인니 경쟁법(UU 5, 1999)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니 항공사들의 항공 운임은 기본요금과 유류할증료, 보험료, 부가세로 구성된다.

● 인니 정부, 반뜰주 스르뽕에 석탄터미널 건설 예정

Tanjung Inderawan 교통부 철도 총국장은 반뜰주 남부땅그랑시 스르뽕에 석탄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지방정부의 환경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총국장은 석탄터미널 프로젝트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익성 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이러한 선행조사가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경우 터미널 건설은 2011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터미널이 완공되면 자카르타, 보고르, 땅그랑, 반뜰, 버까지 지역이 동 터미널을 통해 석탄을 공급받게 된다.

● 정부, 자동차에 사치세 200% 부과 예정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한데 이어 사치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책정될 사치세의 규모는 최소 75%에서 최대 200%로 예상된다.

Toyota Astra Motor 대표이사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는 세단이 30~75%, 미니밴 10~75%, SUV가 30~75%이다.

정치동향

● Noordin M. Top 사망

Bambang Hendarso 경찰청장은 테러집단의 우두머리인 Noordin M. Top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oordin은 중부자와 솔로에서 테러 집단과 대테러 특수부대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전 도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Noordin M. Top, Aji, Woorwa, Adip 등 총 네명이며 이들의 시신은 9.17 자카르타로 운송되었다. 이중 Woorwa 라는 별명을 가진 Bagus는 2003년 호주대사관 폭탄테러와 연관이 있는 자로 알려지고 있다.

Bambang 경찰청장은 아직도 14개의 테러조직이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관계

● 수라바야 관광청, 한국과 관광부문 교류 확대

한국에서 개최된 부산시 자매결연 도시 문화교류 심포지움에 참가한 수라바야 관광청은 관광분야에서 수라바야 시와 한국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에 참가한 수라바야 관광청은 수라바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10.15~18일 수라바야에서 개최 예정인 Cross Culture Festival을 홍보했다.

수라바야 관광청은 2009년 1~7월 동안 수라바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770명으로 작년 동기 2,418명보다 줄어들었지만 향후 양국간의 협조를 통해 관광분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아대학교와는 대학간의 교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러시아 대표단은 향후 러시아의 국가건설을 위해 아태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등에 인니를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했다.

사건 사고

● 르바란 휴가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 총 319명

이들 피트리를 전후한 르바란 휴가기간 중 귀성객 31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는 주로 동부 자와와 자카르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주된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부주의였다.

교통부는 9.13~22일 총 1,0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19명의 사망자와 384명의 중상자, 897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동부 할마헤라 지역에서는 9.21 과적 및 승객 초과로 인해 여객선이 침몰,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 관계

● 인니 정책연구개발원(BPPK) 러시아 방문

인니 외교부 산하의 정책연구개발원(BPPK)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의 썩크탱크라고 불리는 카네기 연구재단 모스크바 지소, 정책 연구센터(PIR Center),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니 및 러시아 대표단은 러시아 국내 정치, 에너지정책,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내 사랑 내 곁에

몸이 조금씩 마비되어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종우(김명민).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던 날, 종우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장례지도사 지수(하지원)와 운명처럼 재회하고 사랑에 빠진다. 1년 뒤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의 신혼보금자리는 바로 병원. 종우는 숟가락 하나 손에 쥐는 것도 힘겨운 처지지만 늘 곁을 지켜주는 아내 지수가 있어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투병의지가 강하다.

전신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의 중환자들이 모인 6인실 병동. 비슷한 아픔을 지닌 병동 식구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 받으며 지내는 사이 회복세를 보이는 환자도 수술의 희망을 찾게 된 환자도 하나 둘 생겨난다. 그러나 종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가고, 병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투병의지를 불태우던 종우도 하루하루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언어장애가 시작되는데.....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꽃처럼 화려하고 나비처럼 여렸던 여인, 명성황후 민자영과 불꽃처럼 뜨겁고 나비처럼 순수했던 그녀의 호위무사, 무명의 가슴 시린 사랑!

세상에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자객으로 살아가던 '무명'은 어느 날,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피비린내에 찌든 자신과 너무나 다른 여인, '자영'을 만나게 된 것. 하지만 그녀는 곧 왕후가 될 몸으로, 며칠 후 '고종'과 '자영'의 혼례가 치러진다. '무명'은 왕이 아닌 하늘 아래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자영'을 죽음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입궁 시험에 통과해 그녀의 호위무사가 되어 주변을 맴돈다.

한편, 차가운 궁궐 생활과 시아버지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던 '자영'은 '무명'의 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외압과 그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한 '자영'의 외교가 충돌하면서 그녀를 향한 '무명'의 사랑 또한 광풍의 역사 속으로 휩쓸리게 되는데...





미치도록 즐거워 - 트럭 타고 아프리카로 떠난 그녀

저자 오다나 | 출판사 이룬아침

좌충우돌 아프리카 트럭 투어 적응기 『미치도록 즐거워』. 열혈 워커홀릭이었던 오다나는 잘 나가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로망으로 그리던 아프리카 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행객들과 특수하게 제작된 트럭을 타고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을 소개한다. 쏟아질 듯 가득한 밤하늘에 별들, 온 대지를 감싸는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지는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도는 아프리카 여행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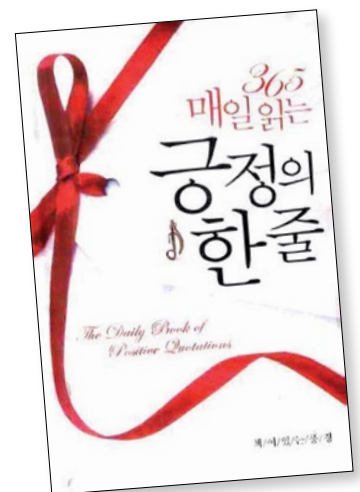
트럭을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오다나는 생생하게 체험한 아프리카 여행 정보를 소개한다. 아프리카에 관한 편견에 대한 답을 주고,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에 참고 할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수록했다. 또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아프리카 트럭 투어에 대한 알짜 정보와 아프리카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방법까지 전한다.



공무도하

저자 김훈 | 출판사 문학동네

30여 년 기자생활을 한 작가가 ‘기자’의 눈으로 들여다본 우리 삶의 이야기 『공무도하』. ‘공무도하’는 옛 고조선 나루터에서 벌어진 역사사건이다. 봉두난발의 백수 광부는 걸어서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져 죽었고 나루터 사공의 아내 여옥이 그 미치광이의 죽음을 울면서 노래했다. 백수광부의 사체는 하루로 떠내려갔고, 그의 혼백은 기어이 강을 건너갔을 테지만, 이 글은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저자 린다 피콘 | 역자 유미성 | 출판사 책이있는풍경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은 동서양의 유명한 문학과, 예술인, 철학자들의 말과 글을 1년 동안 옆에 두고 읽으며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남다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고뇌와 그 극복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가 명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명언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예수와 부처를 비롯하여 인류의 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직접 한 말을 그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석과 함께 엮었다.



명품자녀로 키우는 부모력

저자 송지희 | 출판사 21세기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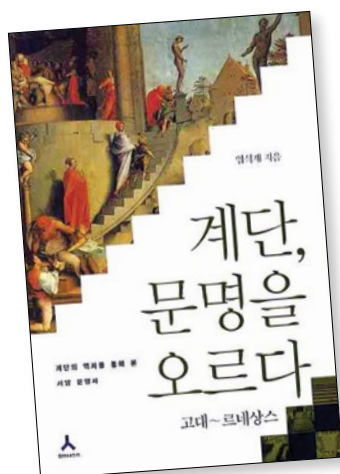
긍정적이고 리더십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자녀 지침서. 『명품자녀로 키우는 부모력』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모 노릇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 저자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계단 문명을 오르다 : 고대 르네상스

저자 임석재 | 출판사 휴머니스트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곳을 이어주는 발걸음의 수직이동 수단’이라는 뜻이다. 계단은 인간의 종교, 정신적 기능적 활동의 결과이다. 한국 최고의 건축사학자 임석재 교수는 서양 건축사를 기본으로 삼아 시간의 흐름과 개념, 주제어를 엮어 서양 건축사에 등장하는 명품 계단과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는 계단사이에 퍼져 있는 관념을 매개로 공통점을 찾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계단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이 책은 두 권으로 된 서양 계단 문명사 가운데 1권에 해당된다. 계단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고대를 거쳐 르네상스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떤 목적에서건 머리 위에 닿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수직 발판 개념으로 시작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경사라는 항시적 지형 조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지나간 발길 따라 자연스럽게 계단이 형성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면서 계단도 문명사를 따라 형식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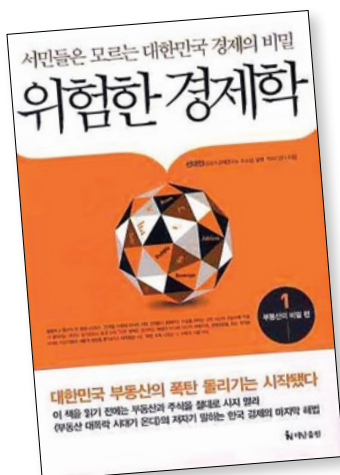


위험한 경제학 -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저자 선대인 | 출판사 더난출판사

주가는 2009년 초 900대의 저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2009년 초까지 폭락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등 폭을 키우고 있다. 경상수지 또한 사상 최고의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09년 초만 해도 엄청난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경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모든 위기 상황은 종료된 것일까?

『위험한 경제학』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 상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 주려고 한다. 본문은 먼저 한국 경제가 왜 위험한 상황인지를 위기 구조의 핵심인 부동산 버블을 꼼꼼하게 분석해나간다. 그리고 핫이슈인 전세대란과 경기부양대책의 성공여부를 논하고, 지금의 집값상승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저자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취재,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실경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딩)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논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향)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시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590 / 021-98202086
0812 19285578 / 085217731003
email : inepark@indosat.net.id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Life style,
Modern & Minimalist, Italian Black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포츠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썬더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뽀찌까랑)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팔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믿을 수 있는,
Dobo & Tahiti 産 VVS G 칼러
최상품 진주
정가제 판매

고객분을 위해
모든 토라자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Shop Hour : Monday-Friday 8.30-16.30
Jl Tirtayasa IX/6 (Belakang Hotel Ambara)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Phone : +62 21 7399923; +62 21 7245469
Handphone : +62 811 922 04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개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10월 공지 사항

U.I 한국문화의 날

지난해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널리 알렸던 인도네시아 대학(이하 UI) 한국학과가 금년에도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행사명 : 2009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장소 : 인도네시아대학 문화학 대학(FIB-UI)

9동 아우디토리움

내용 : 부채춤, 아로바 공연, 한글 설명회, 한국영화 상영 외

주최 :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학과

한국대사관 관세관 업무 안내

○ 통관애로사항지원, 관세관련상담, 민원해결 지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 관세제도 상담
- 수출입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 마찰 해소지원
- 특히 조정관세부와 관련 인니 세관당국 간 조정역할 수행

○ 한-아세안 FTA 활용제고 지원

- 원산지 규정, 양허세율, 특혜통관제도 등 상담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관련 애로해소 지원 및 상담
- FTA 특혜통관시 애로 · 마찰해소 지원 및 FTA 비즈니스 모델 상담

○ 기타 관세 및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향후 한인회, KOTRA, 한인 상공회의소, 통관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 (「현지 통관협의체」 구축, 설명회 개최 등)

□ 연락처

TEL : 62-21-520-1915

HP : 0811-993-1325

FAX : 62-21-525-4159

E-mail : leeds@customs.go.kr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권설링,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 E-mail : jkt_kimhoil@msn.com

대한항공 채용정보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원서접수 : 2009. 9. 14 ~ 종료시까지
2. 모집분야
 - 여객운송
 - 화물영업
3. 자격
 - 인도네시아 거주자
 - 2년제 대졸 이상
 - *여객운송 분야는 한국어 가능자
4. 접수방법 : jobstreet.com 을 통해 개별 지원
(<http://id.jobstreet.com/>에 접속,
Job Search 에서 Korean Air 입력)
5. 채용일정 : 개별통보
6. 기타문의: 021-521-2177 (Ms. SARI WINIAWATI)
또는 021-521-2173 (부장 양재필)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9월 르바란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합니다.

변함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대한항공은 교민 여
러분이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르바란 추가운항편

편명	운항일	기종	출발		도착	
KE626	9.17~9.19	772	자카르타	23:55	인천	08:55*1
	9.26~9.28					
KE625	9.17~9.19	772	인천	17:50	자카르타	22:50
	9.26~9.28					

기존운항편: 스케줄 변동 없음

편명	운항일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772/744	자카르타	22:05	인천	07:10*1
KE627	매일	772/744	인천	15:45	자카르타	20:45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
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
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Garuda Indonesia



가루다인도네시아가 2009년 7월부터 자카르타-인천 간 직항노선
을 선보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24시간 콜센터(08041807807)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루다항공 하계 운항편

노선	항공기명	출발 (현지시각)	도착 (현지시각)	운항일
자카르타 - 인천	GA 898	23:25	08:30 (익일)	화,금,일
인천 - 자카르타	GA 879	10:35	15:35	월,수,토

24 hour



www.garuda-indonesia.com

0 804 1 807 807

or (021) 2351-9999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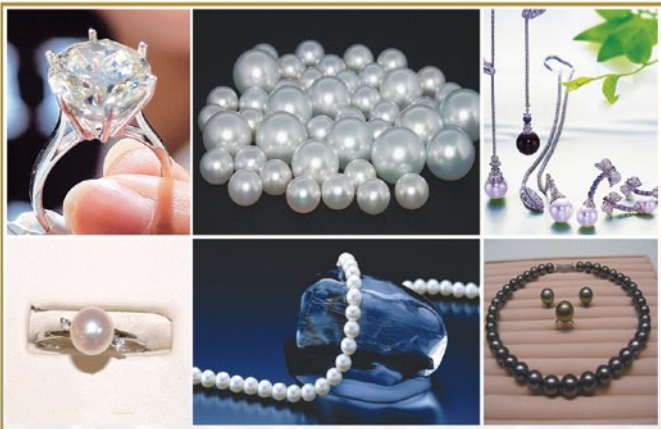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건강한 식탁이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풀잎 위의 빗방울이 자연을 즐겁게 하고

내 아이의 노랫소리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편리하게

당신은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십시오

CJ는 세상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즐기세요 생활문화기업 CJ



CJ Indonesia

PT Cheil Jedang Indonesia

PT Cheil Jedang Superfeed

PT CJFeed Jombang

PT Super Unggas Jaya

PT Agrobis Panca Ekatama

CJ GLS

